Life p/17

월드컵 관련 이벤트 쏟아진다

metro
메트로 2014년 6월 13일 금요일 www.metroseoul.co.kr

Entertainment p/21

한·일 걸그룹 한국서 격돌

홍명보호 마지막 담금질 2014 브라질 월드컵 개막을 앞둔 11일 오후(현지시간) 한국대표팀의 베이스캠프인 브라질 이구아수의 페드로 바소 경기장에서 홍명보 감독이 몸을 풀고 있는 선수들 사이를 걷고 있다. /연합뉴스

월드컵 '킥 오프'… 지구촌 '들썩'

개최국 브라질 복병 크로아티아와 첫 경기
위기에 강한 태극전사 18일 러시아전 '올인'

지구촌 최대의 축제 2014 브라질 월드컵이 13일 오전 5시 개최국 브라질과 복병 크로아티아의 일전으로 한 달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삼바축구의 본고장 브라질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13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32일 동안 진행된다. 4개국씩 8개 조로 나뉘어 치러지는 본선에서 각 조 상위 2개국이 16강에 오른다.

◆ 홍명보호, '기적' 만든다

2009년 이집트 국제축구연맹 청소년월드컵(20세 이하) 8강,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 동메달, 2012년 런던올림픽 동메달.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이 걸어온 길이다. 단 한 차례도 실패는 없었다. 이 때문에 홍 감독에 대한 팬들의 기대감은 높아졌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튀니지전, 10일 가나전에서 연패하며 전망은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다.

홍명보 감독이 그동안 위기에 강했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희망은 남아있다. 과거 영광을 맛봤던 대회에도 출발은 불안했다.

이집트에서는 조별리그 1차전에서 카메룬에 0-2로 패했다. 그러나 2차전 독일과의 경기서 1-1로 무승부를 기록했고 미국과 최종전에서 3-0으로 완승하며 16강에 진출했다. 16강전에서 파라과이를 3-0으로 완파하며 8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광저우에서는 결승 문턱에서 아랍에미리트에 패했지만 이란과의 3·4위전에서 드라마를 연출했다. 3-1로 뒤진 후반 11분간 3골을 몰아치며 4-3 역전승을 거뒀다. 런던에서도 마찬가지다. 1승 2무로 조별리그를 통과한 홍명보호는 8강전에서 개최국 영국과 만났다. 전력면에서 열세였지만 승부차기 끝에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러시아와의 조별리그 1차전(18일 오전 7시)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이어 23일 오전 4시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알제리와, 27일 오전 5시 상파울루에서 벨기에와 차례로 맞붙는다.

위기에 강한 모습을 보였던 홍명보호는 걸어온 길을 잊지 않을 것이다. 브라질에서 또 한 번 그들의 드라마를 준비하고 있다.

◆ 남미 유럽 우승 예상국

올해 강력한 우승후보로 브라질을 꼽는다. 브라질은 개최국으로서 홈 이점까지 안고 있다. 브라질의 간판 공격수 네이마르(FC바르셀로나)를 필두로 오스카르(첼시), 페르난지뉴(맨체스터 시티), 하미레스(첼시) 등의 공격진은 화려함의 정수로 일컬어지는 브라질 축구의 진면목을 과시할 준비를 마쳤다.

아르헨티나도 강력한 우승 후보다. 불세출의 슈퍼스타 리오넬 메시(FC 바르셀로나)와 세르히오 아구에로(맨체스터 시티), 곤살로 이과인(나폴리)이 공격을 이끈다. 여기에 앙헬 디 마리아(레알 마드리드), 하비에르 마스체라노(바르셀로나) 등이 받치는 진용은 '대륙 라이벌' 브라질에 도전장을 내밀기에 부족함이 없다. <2면에 계속>

/…기자

중산층 기준 35평 살며 월 515만원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월 평균 515만원 수입'과 '35평 규모 주택 보유'.

우리나라 국민이 이상적인 중산층의 모습으로 생각하는 기준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당신은 중산층입니까'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에서 전국 성인 남녀 8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밝혔다.

조사결과 이상적인 중산층 가구는 월 515만원을 벌고 이 중 341만원을 생활비로 지출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한 달에 네 차례 가족과 외식을 즐기고, 외식비로 매회 12만3000원 정도 지출해야 한다고 답했다. 주택 평수는 34.9평, 주택 가격은 3억7000만원이다. 이를 포함한 순자산은 6억6000만원 수준이다.

이들은 또 소득의 2.5%를 기부하고, 1년에 3.4회 가량 자원봉사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속의 삶은 이와 괴리가 있다. 응답자 가구는 매달 416만원을 벌어 252만원을 쓰고, 27평 주택을 포함해 3억4000만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월 외식 횟수는 3.2회, 외식비용은 6만3000원이고, 기부에는 소득의 1.1%, 자원봉사는 월 3.1회 수준이다.

이 연구위원은 "빡빡한 생활비 속에서도 여유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게 사교육비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가족·동료와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균기자 ksg@

세월호 유족대표 면담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인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한 세월호 유족대표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치관 편향 총리 자격 있나

문창극 후보자 칼럼·역사 발언 등 파문 확산…개각 변수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에 했던 여러 칼럼과 "일제의 식민 지배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취지의 동영상까지 공개돼 호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문 후보자는 2011년 자신이 장로로 있는 서울 온누리교회의 특별강연에서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은 것과 남북 분단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민족을 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일제 식민지 발언'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일본 정부와 위정자들을 향해 과거를 직시하고 그에 상응한 성의있는 조치를 촉구해왔던 터여서 검증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 정서상 쉽게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발언이다.

또 이듬해 강연에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차원의 잘못을 인정한 제주 4·3 민주항쟁을 '폭동'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과거 교회 강연과 일부 칼럼에 대한 논란에 대해 문 후보자는 12일 "논란이 되고 있는 글들은 언론인 출신의 자유 기고가로서 쓴 것이고, 강연은 종교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한 것이어서 일반인의 정서와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다"며 "국회 청문회에서 이런 의지와 방향을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후보자는 총리 지명 이후에도 문제를 일으켰다. 11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으로 출근하면서 책임총리를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는 취재 기자들 질문에 "책임총리 그런 것은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또 이날 서울대 IBK커뮤니케이션센터에서 진행한 언론정보학과 전공선택과목 '저널리즘의 이해' 종강에서 최근 신촌 일대에서 진행된 성소수자 축제를 "무슨 게이 퍼레이드를 한다며 신촌 도로를 왔다갔다 하느냐. 나라가 망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인사는 건국 이래 최대의 인사참사"라며 총리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초자 "기독교 신앙으로 포장했을 뿐 잘못된 신앙에 근거한 부적절한 주장이며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불경스러운 일"이라고 비난했다.

문 후보자가 예상치 않게 여론검증 단계에서 상당한 논란에 휩싸임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계획했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이전의 내각 개편작업은 유동적인 상황으로 변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국진기자 mkim@metroseoul.co.kr

밀양사태, 대화 늦지 않았다

기자 수첩
윤다혜
<정치사회부 기자>

밀양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 농성장이 모두 철거됐다.

그동안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려던 한전과 이를 저지하는 지역주민 간의 전쟁이 9년 만에 막장으로 일단락됐다.

지난 11일 주민들의 절규에도 정부와 밀양시, 한전과 경찰은 행정대집행을 강행했다. 이날 밀양시와 경찰, 한국전력 직원 등 2500여명이 주민 진압과 농성장 철거에 동원됐다.

경찰과 주민들이 대치하고 있다고 했지만 실제 철거현장의 모습은 참담했다. 대부분 70~80대 변대 주민들은 움막 옆에 파놓은 구덩이에 LP가스통과 휘발유, 쇠사슬을 설치해놓고 극렬하게 저항했다.

한 주민은 경찰이 끌어내려고 하자 목에 쇠사슬을 걸고 버텼으나 경찰이 이내 쇠사슬을 절단기로 자르는 등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또 일부 주민은 아래 속옷만 입고 온몸으로 맞섰지만 끝내 경찰에 굴복한 채 끌려나갔다.

그동안 정치권 시민사회 등은 끊임없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호소해 왔다. 그러나 정부와 한전은 국가 폭력으로 밀양 주민을 제압했다. 이렇게까지 공권력을 투입해 강행했어야 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송전탑이 완성되더라도 앞으로 갈등은 계속될 것이고 주민들이 입은 상처는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게 될 것이다.

전력난 해소를 위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한전과 정부, 밀양시는 이런 막장 자세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시간을 두고 주민들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

뉴스&뉴스

배기운·김선동 의원직 상실…재보선 14곳

●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64·전남 나주·화순) 의원과 통합진보당 김선동(47·전남 순천 곡성) 의원이 12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었다. 이에 따라 내달 30일 열리는 재·보선 지역은 1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대법원은 오는 26일에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정두언(57·서울 서대문을), 성완종(63·충남 서산·태안)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할 예정이어서 내달 재보선 지역은 추가로 늘어날 수도 있다.

대법 '떡값 검사' 폭로 노회찬 승소 판결

● '떡값 검사' 폭로 논란과 관련해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가 노회찬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 전 의원의 승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12일 "게시물 게재의 공익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노 전 의원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새누리 윤리위, 유승우 당적 제명 의결

● 새누리당은 12일 지방선거 금천현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유승우 의원의 당적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달 27일 부인의 금천현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유 의원에게 탈당 권유를 결정했지만, 유 의원이 재심을 청구해 이번 회의에서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문창극 논란에 고민 많은 새누리당 지도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상현(오른쪽 두번째) 사무총장, 김재원(맨 오른쪽)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대통령 '친정체제' 강화

정무에 조윤선 등 청와대 수석 4명 교체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정무수석에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을 내정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에 여성이 기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경제수석에는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 민정수석에는 김영한 전 대검 강력부장, 교육문화 수석에는 송광용 전 서울교대 총장을 각각 내정했다.

아당의 사퇴공세를 받아온 김기춘 비서실장은 유임됐다.

이번 개편으로 총 9명의 수석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명이 교체돼 지난해 8월 참모진 교체에 이어 사실상 제3기 참모진이 출범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핵심측근인 조 정무수석, 안 경제수석 등을 청와대로 불러들임으로써 세월호 참사로 위기를 맞은 박 대통령이 '친정체제'를 강화, 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준기자

우승은 남미 유력 예상 속 유럽 맹위 관심

<1면에서 계속>

유럽 축구 전통의 강호 독일은 이번 대회서 메수트 외질, 루카스 포돌스키(이상 아스널), 마리오 괴체, 마누엘 노이어(이상 바이에른 뮌헨), 마르코 로이스(도르트문트)를 앞세워 '전차군단'을 이끌 예정이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트로피를 들어 올린 스페인은 경험과 자신감으로 중무장했다. 이번 경기에는 남아공월드컵 우승멤버가 16명이나 포함됐다.

이탈리아는 신구 조화를 내세웠다. 안드레아 피를로와 잔루이지 부폰(이상 유벤투스) 등의 노장과 마리오 발로텔리(AC 밀란), 주세페 로시(피오렌티나), 스테판 엘 샤라위(AC 밀란) 등 신예 선수들의 기량이 급성장하며 공수에서 탄탄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가 이끄는 포르투갈, 올 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루이스 수아레스(리버풀)의 우루과이, 축구 종가 잉글랜드도 '깜짝 쇼'의 주인공이 될지 모른다.

/정혜인기자 yuni@

"비밀땅굴 많다" 지하 탐색

검경 금수원 이틀째 수색… 신분증 조회때 신도들과 마찰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본산인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 대한 이틀째 수색이 12일 오전 재개됐다. 검찰과 경찰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전 세모그룹 회장)의 은신처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검경은 금수원 안에 비밀땅굴 등이 곳곳에 있다는 제보를 토대로 전날 안성시로부터 확보한 지하수 탐지기를 동원, 지하시설을 찾기에 나선 데 이어 이날 음파탐지기까지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이들 장비를 활용, 유 전 회장의 은신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수원 내 토굴이나 비밀땅굴, 지하벙커 등 지하 시설물을 집중 탐지하고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검찰의 요청으로 농어촌공사에 부탁해 지하수탐지기를 어제 오후 확보해 현장에 투입했다"면서 "전자파를 이용해 지하 시설물을 탐지하는 장비인데 성능은 그리 좋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경은 또 수색인력과 탐지견을 대거 동원, 금수원 내 주요 시설물은 물론 인근 야산과 농경지까지 수색범위를 확대해 유 전 회장의 흔적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이날 구원파 신도 200여명은 금수원 내 대강당 맞은편 건물인 농산물건조장 앞에 모여 전자오르간 반주에 맞춰 찬송가를 불렀다. 검찰 수사관과 경찰 수색조 형사들이 구원파 신도들에게 접근, 일일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마찰이 일어나기도 했다. 1시간 넘게 신분증을 대조하며 이들을 조사했지만 수배자는 단 한 명도 찾지 못했다.

한편 이날 수색에는 40개 기동중대 경찰관 3600여명과 검찰 수사관 수십명이 투입됐다.

/유선준기자 rsjun@metroseoul.co.kr

전주에 떨어진 지름 1㎝ 크기 우박 12일 오후 전북 전주와 익산 지역에 지름 1㎝ 크기의 우박이 내렸다. 전주 기상대는 이날 지표면에 있는 따뜻한 공기와 높은 고도의 찬 공기가 뒤섞이면서 소나기와 함께 우박이 내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천만 유림 도덕부흥대회 12일 성균관 대성전에서 열린 '1000만 유림 도덕부흥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관서 삼창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기소

감리회 선거분쟁 휘말려

조대현(63) 전 헌법재판관이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출을 둘러싼 내부 갈등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빼내기 위해 감리회본부 사무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폭력행위등 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로 조 전 재판관과 대한감리회 전 감독회장 직무대행 임모(65)씨, 기획홍보부장 김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7일 오후 7시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장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대리인 선임 결정서와 진술서 등의 문건을 뒤진 혐의를 받고 있다.

분쟁은 지난해 7월 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에서 전용재 목사가 당선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조 전 재판관이 재판위원으로 참여한 특별재판위원회는 부정선거를 이유로 당선무효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전 목사는 당선무효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민준기자

유병언 장녀 보석신청 기각

프랑스 법원, 구금 상태서 한국 인도 결정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48)씨가 프랑스 법원에 낸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이로써 섬나씨는 구금된 상태에서 한국으로 인도될지를 결정 받게 됐다.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은 11일(현지시간) "보석을 허락하면 유섬나가 프랑스에 계속 머물지 않기 어렵다"며 유 씨 변호사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담당 판사는 "유섬나 남동생인 유혁기가 프랑스에 있다가 현재 사라져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다"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씨의 변호사인 파트릭 메조뇌브는 "앞으로도 유섬나의 보석이 허락될 수 있도록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유씨가 보석 신청을 계속 내면 유씨의 범죄인 인도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유씨는 492억원의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어 한국과 프랑스 양국 사이의 조약에 따라 일단 범죄인 인도 대상이다. 그러나 항소법원이 인도 결정을 내리더라도 유씨가 불복해 상소하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 재판을 받는 동안에 다시 보석을 신청할 수도 있다. /유선준기자

의정부 경전철 안전시험 일부 누락

의정부경전철에 안전관련 시험을 일부 누락한 채 준공허가를 받는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각종 부실 허가 사례가 감사원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전국 41개 행정기관에 대해 '하천기 민원 정보시스템 점검' 감사를 한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경기도 의정부시는 2012년 의정부경전철의 시설물검증시험을 담당한 민간 업체가 철도안전법 등에 따른 선로구조물시험과 전자파적합성 시험을 빠뜨렸는데도 준공처리를 해줬다. 이 때문에 의정부경전철 의정부역 인근 교량에서는 불과 설치 3년여 만에 교량이 25㎜ 내려앉는 처짐 현상이 발생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이측을 찾아낸 이런 현상의 정확한 원인도 밝히지 못한 상태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관련 시험 누락으로 의정부경전철의 안전성 및 전자파 발생으로 인한 영향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며, 공사 당시의 기초 진단자료가 없어 향후 문제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다혜기자

'착한 교복' 협동조합 결성

최대 40%까지 싸게 판매

기존 브랜드 제품과 품질은 비슷하면서도 가격이 최대 40%가량 싼 교복을 판매하는 협동조합이 전국 최초로 결성된다.

e착한 학생복 협동조합은 24일 서울 중랑구 W웨딩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e착한 학생복은 4대 교복 브랜드업체와 거래하던 대리점주 70여 명이 모여서 꾸린 협동조합이다.

본사의 부당한 횡포와 교복 가격 인하에 대한 사회적 압력에 샌드위치 신세가 된 대리점주들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아예 직접 교복을 생산·판매하게 된 것이다. e착한 학생복은 협동조합의 이름에 걸맞게 브랜드 업체의 교복과 품질은 비슷하면서도 가격이 최대 40%가량 저렴한 교복을 판매할 계획이다. /윤다혜기자 ydh@

자동차 공회전 내달 10일부터 과태료

서울시는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안내 기간이 끝나는 7월10일부터 공회전 제한 장소로 지정된 곳에서 시동을 켠 채 자동차를 세워놓으면 사전경고 없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이상, 경유 차량은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시는 중점 제한장소 이외의 지역에서는 지금처럼 사전경고를 통해 시동을 끄게 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조치하고 운전자가 시동을 켠 채 자리를 비운 경우에는 단속한다.

다만 생계형 자영업자와 새벽 시간 근로자, 노약자의 불편을 고려해 기온이 0도 이하이거나 30도 이상이면 공회전을 허용한다. 또 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 청소차, 정비 중인 차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민준기자

공동체 주민제안사업 공모

서울시 영등포구는 2014년 제2차 영커네(영등포 희망 동네)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영등포구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두고 있는 3인 이상의 주민 모임, 비영리 단체면 누구나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다.

금천구 '외국어 교실' 운영

서울시 금천구는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funny 외국어 교실'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외국어 교실은 결혼 이민 가정의 주부들이 지역 아동센터 등에 방문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자국의 언어·문화 등을 가르치는 사업이다.

관악구 '사이버 기자단' 인기

서울시 관악구는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사이버 기자단'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기자단은 지역의 문화·행사·지역 명소 등을 취재해 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블로그에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

"비상구 자물쇠 채워졌었다"

장성요양병원 참사 이사장 등 14명 입건

2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장성 효실천 사랑나눔(효사랑) 요양병원 화재와 관련, 현재까지 모두 14명이 입건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2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방화 피의자 김모(82)씨를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실질 이사장인 이모(53)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의 형인 행정원장과 관리과장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혐의별로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1명, 업무상 과실치사상 4명, 허위공문서 작성 2명, 증거은닉 3명,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2명,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2명이다.

경찰은 병원 건물이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졌고 간호 인력 배치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비상구를 자물쇠로 잠그고 소화기를 캐비닛에 보관하는 등 소방 안전 관리도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전했다. /장성=[illegible]기자

우체국쇼핑, 개성공단 협약

[illegible] 제공

한국우편사업진흥원과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최근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본사에서 우체국쇼핑을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편사업진흥원은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200여개의 품질 좋은 상품전매와 홍보활동을 지원하며 우체국쇼핑 내 개성공단 전용관을 신설하고 향후 상품 판매를 위한 프로모션과 기획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천만원 받고 시험지 유출

서울 양천구 여고 교사 긴급 제포…압수수색

서울의 한 사립 여고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의 모 사립 여고 국어교사 M(57)씨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동시에 경찰은 해당 여고에 수사관을 보내 교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시험지 관련 자료와 M 교사로부터 시험문제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들의 성적표 등을 확보했다.

M 교사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A양에게 보여주고 학부모로부터 모두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M 교사는 한번에 수백만원씩 현금으로 받거나 계좌로도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계좌추적과 통신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M 교사가 A양 외 두세 명의 학생들에게도 시험 문제를 유출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국어교사인 M 씨는 국어문제뿐 아니라 영어와 수학문제까지 빼돌렸는데 다른 교사들이 가담했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찰조사에서 M 교사는 학부모에게 빌린 돈일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미 상당수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수능 6월 모의평가 시행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시행된 12일 오전 서울 [illegible]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올여름, 거대한 여름왕국이 찾아온다
오션월드
WORLD CLASS CLIMAX
무료셔틀버스 매일 운행(서울/수도권→비발디파크)
춘천고속도로 타고 빠르게(춘천 40분)
1588-4888

metro global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 Russia

Если жена мешает футболу

metro Brazil

Na Copa, Justiça fa

월드컵 기간 공항인력 24시간 대기

월드컵 기간에 갑자기 몰릴 인파를 우려한 상파울루주가 공항 내부 인력의 근무 시간을 24시간으로 연장했다. 법원과 상파울루주 대중교통 시스템 담당서인 아르텍스피는 폭발적인 방문객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쿰비카와 콩고냐스 공항 내의 운영 시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과룰루스 국제공항 직원들의 근무 시간 또한 24시간이 됐으며 다른 지역 공항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된다.

metro France

Des benévoles au secours des mamans en détresse

Solidarité

싱글맘 돕는 봉사단체 인기

프랑스 낭트에서 싱글맘을 돕는 한 봉사단체가 인기를 얻고 있다. 젊은이들로 구성된 이 단체의 목적은 홀로 아이를 키워야만 하는 임산부와 젊은 엄마들을 돕는 일이다. 봉사자는 싱글맘과 아이의 '대부'가 되어 다방면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팀마다 7명으로 구성된 봉사자는 사회학, 의학 등 그 분야가 다양하다. 단체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여성이 새 배우자와의 결혼을 원할시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 새로운 삶을 꾸리도록 돕기도 한다.

아내 없이 축구경기 보자!

월드컵 맞아 남편들 이색 계약서… 대표팀 경기 있는 날 심부름 금지 등 요구

최근 러시아에서 브라질 월드컵을 맞아 이색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이름하여 '아내 없이 축구보기'. 남성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아내에게 축구광의 열정을 담은 계약서를 보낸다.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TV로 축구 경기를 보기 위해서다.

프로젝트를 기획한 미하일 신데예프는 "축구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공감하지 못하는 아내에 대해 불평하는 남편이 많다"며 "이는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남편과 아내 모두 행복하게 월드컵 기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웹사이트를 만들게 됐다"고 덧붙였다.

남성들이 아내 없이 축구보기 웹사이트에 가입을 하면 아내에게 e-메일로 계약서가 발송된다.

계약서는 이번 월드컵 기간 러시아 대표팀의 축구 경기가 있는 날 남편에게 심부름 다녀오기, 설거지, 청소하기, 아이 돌보기 등의 집안일을 부탁하지 않고 잔소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아내가 이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 남편은 아내없이 축구 보기 웹사이트의 정회원이 된다.

신데예프는 "이 사이트는 남편이 축구 경기를 보는 동안 아내를 돌봐주는 일종의 아내 돌봄이 사이트"라며 "여성들은 사이트에서 사이버 브라질 관광, 포르투갈어 배우기, 아내 전용 수다방 등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이트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 대회도 열고, 우승자 2명에게는 상품으로 브라질 여행권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 프로젝트는 남성들의 간절한 바람을 담은 진지한 프로젝트"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계약서에 동의했지만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나쁜 아내'를 위한 조치도 마련돼 있다.

신데예프는 "우리는 아내에 대한 불평을 털어 놓을 수 있는 특별 전화를 운영 중"이라며 "이곳으로 전화를 걸면 직원들이 상담을 통해 남편이 경기를 시청할 수 있도록 아내를 설득한다"고 말했다.

/미하일 네페체흐 기자·정리=조선미기자

metro HongKong

더러운 '발 쌀국수' 사진 네티즌 경악 금지 못해

최근 중국 인터넷에 올라온 '쌀국수' 사진에 네티즌들이 경악했다.

6일 한 웹사이트에 '둥관(東莞) 모 쌀국수공장 내부 직찍'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여러장 올라왔다. 사진 속 공장에서 쌀국수는 공장 바닥 여기저기에 널려있고, 근로자들은 맨발로 새하얀 쌀국수를 밟고 다니고 있었다. 심지어 쌀국수 더미 위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내가 평소에 먹던 쌀국수가 발 밑에서 뒹굴던 거였어?"라며 경악을 금지 못했다.

네티즌들이 '둥관의 더러운 발 쌀국수'라고 이름 붙인 사진들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정부 관리 감독 당국은 도대체 뭘 하고 있나?", "이 비양심적인 생산기업을 찾아내 파산시켜야 한다" 등 비난 여론이 순식간에 쏟아졌다. 하지만 사진 속에서는 이 공장의 명칭이나 위치, 촬영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9일 둥관시 식약관리감독국은 "7일 이른 모니터링 중 관련 글을 발견하고 조사한 결과 이 생산 기업이 둥관 내 기업임을 확인했다. 이후 시내 17개 쌀국수 공장을 대상으로 사실을 조사했고, 이 사진이 다오자오진의 룽펑(隆鳳)공장에서 찍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 사진은 2014년 춘제(春節) 이전에 찍힌 것으로 사진 속 근로자 중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퇴사했다. 제조공장은 이미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회사가 바빠서 직원 관리에 소홀했다"고 인정하며 "앞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위생 교육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정리=조선미기자

공사중단에 분양 연기… 재개발 '갈등'

사업성 악화로 건설사-조합원 '줄다리기'

오랜 부동산시장 침체 여파로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건설사와 조합원 간 갈등을 빚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각자의 수익과 연결되는 공사비·분양가·마감재 등을 두고 서로 양보 없는 설전을 벌이면서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최근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뉴타운1-3구역의 공사를 중단했다. 관리처분변경 계획안이 조합원 총회 무산으로 사실상 부결됨에 따라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시공사가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독소조항이 가득한 관리처분안을 통과시키려다 실패하자 공사를 일방적으로 멈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대림산업은 변경된 관리처분안은 지난 2월 14일 조합·비상대책위원회·정상화를 위한 모임 등과 함께 체결한 4자간 합의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조합원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말에는 현대건설·SK건설, 포스코건설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성동구 왕십리뉴타운3구역의 공사가 멈췄다. 앞서 개최된 조합원 총회에서 비례율을 104%에서 70.12%로 낮춰 조정하고 공사비 275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수정된 관리처분 계획안이 부결돼서다.

공사는 일주일 만에 가까스로 재개됐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부결된 관리처분 계획안에 따르면 가구당 추가분담금이 2억~3억원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조합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사는 언제든지 다시 중단될 수 있다.

분양을 불과 하루 앞두고 전격 연기되는 일도 발생했다. 삼성물산은 애초 용산구 한강로2가 '래미안 용산' 견본주택을 지난달 23일 개관하려고 했으나 22일 갑작스럽게 6월로 미뤘다.

오픈 며칠 전 1~2주가량 일정을 미루는 경우는 간혹 있지만 이처럼 예고 없이 한 달씩이나 연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바닥 마감재가 문제가 됐다. 시공사와 조합이 원목과 대리석을 두고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것.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조합원들끼리도 원목과 대리석에 대한 전호도가 나뉘고, 3.3㎡당 분양가를 1900만원대로 낮추기로 합의한 후에도 2000만원 이상 받아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어 시끌시끌하다"며 "6월에는 분양한다는데 제대로 될지 모르겠다"고 귀띔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마감재는 조합원끼리 의견이 맞지 않는 상황으로, 합의가 되면 우리는 그에 따를 예정"이라며 "분양가도 3.3㎡당 1900만원대에서 변동이 없고 6월 분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경기 침체로 뉴타운·재개발 사업들이 몇 년씩 지체되면서 사업비가 늘고 미분양 부담은 커지면서 수익성이 악화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서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줄다리기를 하다 보니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석한홍기자 [email]@metroseoul.co.kr

올 경제성장률 3.4%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올해 우리 경제의 연간 성장률이 3.4%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4월 발표한 연간 성장률 3.5%에 비해 0.1%p 하향 조정된 것으로, 최근 세계경기 회복세 약화, 환율하락세, 소비 부진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하반기 민간소비는 가계소비성향이 하락하는 가운데 세월호 사건 이후 소비심리 악화 등으로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설비투자도 지방선거 이후 정치 리스크 확대 등으로 회복세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은 유럽(저성장 지속), 중국(구조개혁 수반 성장 둔화), 일본(소비세 인상 이후 회복 불안), 신흥국(금융 불안 재발 가능성) 등 대외여건 불확실성 확대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5%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는 마이너스 생산 갭 축소, 국제원자재 가격 반등 등으로 하락압력이 완화되면서 상반기보다 높아지겠지만 연간으로는 2.0%의 낮은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내수 회복 지연에 따른 수입부진의 영향으로 하반기 흑자가 확대되면서 연간으로는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799억 달러)를 상회하는 831억 달러로 전망했다.

원·달러환율은 하반기 중 하락세를 이어가겠으나 4분기에는 유로·엔 약세에 수반된 달러강세의 영향으로 소폭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며, 연평균 1035원을 예상했다.

한편 보고서는 최근 고용증가세는 확대되었지만 소비여력은 오히려 감소해, 고용증가가 민간소비 확대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두탁기자

기준금리 13개월째 동결 한국은행은 12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50%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작년 5월 0.25%포인트 인하된 이후 13개월째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됐다. /연합뉴스

Issue&View 주유소협회 반발

/유주영 기자

정부vs주유소協, '파국 걷나'

주유소 24일 동맹휴업 맞서 산업부 강경대응

한국주유소협회가 12일 예정했던 동맹휴업을 유보했다. 하지만 정부와 협상이 원활히 타결되지 않으면 오는 24일 동맹휴업을 다시 추진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주유소협회는 7월 정부의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도입과 관련, 2년간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1972년 도입된 주유소의 '월간보고 제도'의 경우 보고 기간이 길어 시의성과 정확성이 없고 가짜 석유 유통의 가능성이 있다며 '주간보고 제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주유소 협회는 변경된 제도가 영세한 주유소의 경영난을 가중시킨다는 주장이다. 주간보고 작성에 적지않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돼 업무 부담이 커진다는 것.

특히 주유소 업계의 평균이익이 연간 3800만원인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세수가 증가해 7000여만원의 부담을 떠안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입법예고를 한지 1년이 지났고, 시행 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치기로 한 만큼 예정대로 시행을 강행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주간보고가 도입되면 모든 주유소가 주유기로만 주유하는 것을 보고해 물량정보를 속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전광판 주유소의 수익은 증가하며 불법적인 석유 유통은 제한할 것으로 보내다봤다. 이밖에 지하경제 양성화로 연간 1조 가량의 세수를 거둬들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한발 더 나아가 동맹파업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당한 사유없이 동맹파업을 실시할 경우 사업정지 1개월, 벌금 1500만원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파업을 주도한 주유소에 대해 법인 설립을 취소할 예정이다.

주유소협회는 정부의 이런 강경방침에 밀려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산업부는 이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협회는 이에 따라 오는 24일 동맹휴업에 나설 전망이다.

market index <12일>

코스피	2011.65 (-3.02)	코스닥	538.14 (+2.84)
금리	2.79 (-0.010)	환율	1017.20 (+0.70)

뉴스&뉴스

LG유플러스 패션시장 공략 LG유플러스가 SPAO와 공동으로 미러 디스플레이와 카메라, LTE 기반의 사물인터넷 기술이 융합된 'U+보드'를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 /LG유플러스 제공

삼성전자 매출액, 세계 최고

삼성전자가 세계 소비재 기업 가운데 매출액 규모 면에서 미국의 애플과 일본 파나소닉 등을 제치고 수위를 차지했다.

딜로이트가 12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2회계연도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매출액은 1790억달러(181조9000억원)로 세계 소비재 기업 250개 가운데 가장 많았다.

애플은 매출액 1565억 달러(159조8000억원)로 2위를 차지했고 네슬레(984억 달러·100조원), 파나소닉(884억 달러·89조66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김혜균기자 [email]

고액체납자 2조5천억 추징

국세청은 지난 2012년 고액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 조직을 설치한 이후 2조4848억원을 추징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은 2012년 2월 임시 조직으로 각 지방국세청에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구성한 이후 지난해 9월 '숨긴재산무한추적과'로 전환했다. 현재 숨긴재산무한추적과에는 212명이 배치됐다.

숨긴재산무한추적팀은 그간 2조4848억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현금 징수한 금액은 1조1775억원이고 1조473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김혜균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02)721-5800. FAX(02)720-1551

발행인·회장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근호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5881

2002년 5월 31일 정간물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124

싱크대 악취 고민 '간단 해결'

전순아 주부 경제학

여름철 주부들의 최대 고민거리 중 하나가 '주방 싱크대' 청소다. 습하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 주방 주변에 고약한 냄새가 진동한다. 싱크대는 제때 관리해주지 않으면 악취의 주범이 된다. 이 때문에 여름을 맞이하는 주부들의 자세도 남다를 수 밖에 없다.

우선 소다는 환경 오염도 없으면서 뛰어난 살균·세정 효과가 있다. 시중에 청소용도로 나온 고급스런 용기의 소다도 있는데,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비닐에 든 저렴한 식소다를 사용해도 괜찮다. 수세미에 소다를 묻혀 싱크대 구석구석을 닦으면 알칼리성 성분이 있는 소다가 산성때를 중화시켜 깨끗이 닦인다.

야채나 과일 껍질도 세정 효과가 있다. 감자나 사과를 깎고 난 껍질로 싱크대나 그릇을 문지르면 가벼운 기름때가 없어진다. 야채 껍질 속에 들어있는 효소가 물때나 기름기를 제거해 준다. 그릇이나 싱크대를 수세미로 박박 문지르면 흠집이 나기 쉬운데 야채 껍질로 살살 문질러주면 그런 걱정은 끝!

먹다 남은 김빠진 맥주도 활용이 가능하다. 싱크대 중에서도 특히 개수대의 음식거름망은 음식물찌꺼기와 곰팡이가 껴 쉽게 더러워진다. 김빠진 맥주를 개수대 안에 부은 후 5분 정도 두면 악취가 사라진다. 또 개수대 안쪽을 쓱쓱 닦아내면 곰팡이와 음식물 찌꺼기가 제거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칫솔이나 얇은 솔로 구석구석 닦아내고 뜨거운 물로 헹궈내면 좀 더 깔끔한 곳까지 청소할 수 있다.

이밖에 10원짜리 동전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못 쓰는 스타킹에 10원짜리 동전 4~5개를 넣어 거름망 안에 매달아 두면 신기하게도 음식찌꺼기가 덜 썩는다. 10원짜리 동전에는 박테리아를 번식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이다. 동전이 검어질 때마다 새 것으로 갈아주면 되는데, 대체로 1~2개월에 한 번 정도면 된다.

/정민지기자 minj@

펀드 수수료 역대 최저 수준

사업자 과당 경쟁으로 수익성 악화 초래

펀드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내 판매·운용보수 비용이 역대 최저 수준까지 저렴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 환매 시 수익률에서 차감되는 각종 비용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투자자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업황이 부진한 가운데 외국에 비해 비용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궁극적으로 수익성 악화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전체 펀드의 총보수비용률(TER)은 지난 2월 말 0.83%로 역대 최저치를 찍고서 3월과 4월 말에도 0.84%로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업황이 좋았던 2007년 1.72%에 비해 반토막 수준이다.

TER은 펀드의 운용·판매·수탁에 드는 펀드보수와 거래수수료 및 회계감사 비용 등에 들어가는 기타 비용을 모두 합쳐 산출한다.

따라서 TER을 통해 펀드의 순자산에서 펀드 운용기간에 계속 투입되는 제반비용의 비중을 알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펀드 환매시 제하는 각종 수수료가 적을수록 펀드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어 긍정적이다.

그러나 펀드 수탁고가 줄어들고 있는데도 보수 비용이 하락하는 것은 향후 자산운용업계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투협에 따르면 미국의 펀드 보수 비용은 국내주식형펀드와 마찬가지로 평균 1%대에 수렴한다.

그러나 미국 주식형펀드의 수탁고는 지난 13년간 4조달러(약 4000조원)에서 7조달러(약 7000조)까지 불어난 반면, 국내주식형펀드는 지난 2007년 말 140조원에서 지난해 말 80조원까지 쪼그라들었다.

미국의 경우 운용하는 펀드 덩치가 커지면서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더 저렴한 보수 비용을 매길 여유가 생긴 셈이다.

반면 한국은 2009년 이후 자산운용사 수가 2배로 늘어난 상황에서 펀드 판매 생필까지 업추지 않자 고객 모집을 위해 '제 살 깎아먹기'식 인하 경쟁에 몰입한 측면이 강하다.

펀드 투자기간 측면에서도 한국은 2~3년 단기투자가 많지만 미국은 10년 이상 장기투자 성향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금투협 관계자는 "미국은 펀드 투자금액과 투자기간에 따라 보수 비용에 대한 각종 할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수준의 보수 비용까지 낮아지는 것"이라며 "10년 이상 장기투자 조건으로 수수료가 저렴한 미국과 국내 보수 비용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체로 선진시장의 펀드 보수 비용은 한국과 비교해 높은 편이다.

영국의 경우 선취판매 보수만 3.5% 수준이며 운용보수가 따로 적용된다.

그러나 국내 상황은 녹록지 않은 형편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자의적으로 펀드 보수 비용을 올리기엔 경쟁 환경이 따라주지 않는다"며 "펀드 신상품의 보수 비용을 아무리 높여도 업계 평균 수준에 맞출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김현정기자 hjkim@metroseoul.co.kr

산토리 맥주 전문점 '토리 펍' 오픈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새로 오픈한 '토리 펍' 플래그십 스토어 앞에서 모델들이 산토리 프리미엄 몰트를 선보이고 있다. 토리 펍은 아시아 최초로 산토리 맥주 전 제품을 만날 수 있는 플래그십 스토어다. /연합뉴스

작년 투자등급 기업 부도율 0.5%…3년째 상승

투자적격등급(신용등급 BBB-이상) 기업의 부도율이 3년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투자등급 기업의 부도율은 0.50%로 2012년(0.41%)보다 0.09%포인트 올랐다.

투자등급 부도율은 2009년과 2010년 각각 0%였고 2011년에는 0.23%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BBB등급 구간의 부도율은 동양시멘트와 STX팬오션 등의 부도 여파로 3.52%를 기록해 1998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부도율은 기업회생 파산 절차의 개시 등에 따라 발생한 법상 부도(협의의 부도)에 근거해 산정됐다.

지난해 투기등급(BB+ 이하)의 부도율은 6.42%로 2012년(15.66%)보다 현저히 낮아졌다. 이는 투기등급에 해당하는 대상이 지난해 109개로 전년(83개)보다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전체 등급의 연간 부도율은 1.68%로 집계됐다. 연간 부도율은 2012년에 1.62%로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상승했지만 지난해에는 조금 떨어졌다.

지난해 신용평가사 4곳의 매출액은 814억원으로 2012년(905억원)보다 91억원(10.1%) 줄었다.

금감원은 "회사채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발행규모가 많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장 점유율을 보면 NICE신용평가(33.9%), 한국신용평가(33.2%), 한국기업평가(32.5%) 등 3사의 점유율이 비슷했다.

신평사가 평가하는 회사채 발행업체는 1110개사로 2012년(1048개사) 대비 62개사(5.9%)가 늘었나 투자등급(1001개)과 투기등급(109개) 업체 모두 전년보다 각각 3.7%(36개), 31.3%(26개) 증가했다.

금감원은 "투기등급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41.4%에서 지난해 9.8%까지 하락했다"며 "2010년 이후 투자등급의 등급 상향비율은 하락하고 투기등급에서의 등급 하향비율은 상승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김보미기자

커피향 나는 자동차 공간 'CMC모터스'

손세차부터 車 외형복원까지…고품격 멀티 오토 케어숍
세련된 카페형 휴식 공간에 모형 전시관도 즐길 수 있어

서울 도심 한가운데인 강남 지벙원 사거리 인근에 위치한 'CMC 모터스'가 차별화된 자동차 내·외장 관리 서비스와 휴식 공간을 제공해 인기를 끌고 있다.

'CMC 모터스'는 전문적인 손세차는 물론 실내크리닝·광택·코팅·판금·도장 등 전문적인 자동차 외형복원 관리까지 한곳에서 논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고품격 전문 오토 케어 숍이다.

200여평 면적에는 ▲신나 전문세차 ▲광택 ▲외형복원으로 나뉘어진 공간과 방문 고객을 위한 세련된 휴식 라운지가 마련됐다.

우선 매장 분위기를 우선시하는 신세대 젊은층 고객의 감성을 사로잡기 위해 자동차 관리서비스와 카페를 융합했다. 기존의 지저분한 작업환경에서 벗어나 방문 고객이 차량을 안심하고 맡기고, 커피 한잔의 여유로움을 갖도록 한 것.

고객을 위한 카페형 인테리어는 연인이 데이트하기에 손색이 없을 정도다. 직접 로스팅한 원두로 뽑은 커피를 마시다 보면 근사한 커피 전문점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자동차를 사랑하는 감성이 묻어나는 소소한 인테리어 소품 역시 볼거리 중의 하나이다.

2층에는 자동차 모형 전시관도 마련됐다. 이곳에는 모형 자동차 열혈 매니아로 알려진 최우진 대표의 콜렉션이 전시됐다. 특히 소장을 위해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다이캐스트 모형 자동차뿐 아니라, 정성스럽게 조립한 프라모델 자동차와 바이크 등 세계 유수 자동차 메이커의 슈퍼카 모형이 즐비하다.

최우진 대표는 "최근 자동차 관리 문화는 단순한 세차 작업을 넘어 하나의 취미생활과 여가생활로 진화하고 있는 중"이라며 "친구와 연인은 물론 가족과 함께 방문해 차량을 맡기고, 커피 한잔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차별화된 프리미엄 오토 케어 숍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CMC모터스는 도심 한가운데서 전문 손세차부터 車외형복원까지 가능한 고품격 멀티 오토 케어 숍을 선보여 인기를 끌고 있다. /CMC모터스 제공

손세차 종류는 기본과 프리미엄 두가지로 나뉜다. 프리미엄 손세차는 100% 수돗물 고압세차부터 타르제거, 프리미엄왁스, 실내 합취 크리닝까지 6단계로 1시간 가량 걸린다. 기본 세차는 20분이면 마무리된다. 강남구 역삼동 655-13에 있고, 영업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오후 7시까지다. 070-7780-7981로 문의하면 된다.

/정의석기자 ferrari5@metroseoul.co.kr

삼성 미국서 '셰프컬렉션 풀 라인업' 출시 삼성전자가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첼시의 미트패킹의 '삼성 리빙 아틀리에' 론칭행사에서 셰프 컬렉션 풀 라인업 출시를 발표했다. /삼성전자 제공

<기업 사회적 책임>

중국시장 성공, CSR에 달렸다

외자기업 평가지수 한국기업 1위…대만·일본·영국 제쳐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이직률 감소를 통한 고용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복지시설 확충, 직원과의 소통 등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춘절 전후 18%에 달하던 이직률이 올해 4%로 크게 떨어졌다."(중국 현지 소재 A사 관계자)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중국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도 최근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담조직을 구축해 기부, 장학 교육지원, 환경공익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결과 기업은 이미지와 브랜드가치 제고, 이직률 감소 등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최근 중국진출 한국기업 127개를 대상으로 '현지 CSR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지 CSR활동을 위한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췄다는 기업이 지난 2012년보다 15.9%포인트 오른 40.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체기업 / 대기업 / 중소기업

대기업은 74.5%가 CSR 전담인력과 조직을 구축했고, 중소기업의 경우 20%가 담당부서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의 CSR에 대한 인식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중국사회과학원이 발표한 2013년 중국내 100대 외자기업 CSR 평가지수 순위에서 국내 기업은 평균 40.3점을 획득해 대만·일본·영국기업 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재중 한국기업은 ▲기부 ▲장학 교육지원 ▲문화교류 지원 ▲빈곤지역 지원 ▲그린오피스제도 실시 등 사회 전분야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CSR 활동은 현지 경영활동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CSR 경영효과를 묻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기업이 '기업 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 제고'(51.2%)를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해관계자 관계 강화'(45.6%), '이직률 감소'(32.3%), '고객만족도 향상'(29.9%), '매출 향상'(26.8%) 등의 효과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정해균기자 hjk@

수입차, 폭스바겐·벤츠가 인기

국내 수입차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까지 수입차는 7만6460대가 팔렸다. 2013년 판매량(6만1695대)보다 23.9% 포인트나 증가했다.

차종별로 보면 소형 해치백은 폭스바겐 골프의 인기가 절대적이었다. 골프는 2.0 TDI 2192대를 포함해 총 2792대가 팔리며 큰 인기를 누렸다. BMW 1시리즈는 971대가 팔렸고, 미니(MINI)도 해치백 모델만 593대가 팔려 만만치 않은 인기를 과시했다.

수입차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형 세단에서는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가 7627대(AMG 포함), BMW 5시리즈(M 포함)가 6728대, 아우디 A6가 6640대의 판매를 기록하며 시장을 주도했다.

대형 세단에서는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가 1858대로 시장을 리드했고, BMW 7시리즈가 530대, 아우디 A8은 613대가 판매됐다.

이들 인기 모델의 특징을 보면, '디젤차'와 '독일차'라는 공통점이 있다. 수입차시장에서 디젤차의 비중은 68.5%로 지난해 60.3%보다 대폭 상승했고, 독일차의 비중 역시 지난해 63.1%에서 올해 69.6%로 올라갔다.

/정의석기자

아이를 위한 특별한 렌터카 등장

kt금호렌터카, 뽀로로·타요 캐릭터 카 출시

국내 렌터카 1위 브랜드인 kt금호렌터카를 보유한 케이티렌탈(대표 표현명)은 미취학 아동에게 인기를 끌고있는 '뽀로로'와 '타요' 캐릭터를 렌터카 차량 전면에 적용한 캐릭터카 상품을 출시했다.

kt금호렌터카는 지난 5월 개관한 국내 최대 규모의 '제주 오토하우스'에서 캐릭터카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일명 '뽀통령'으로 불리는 '뽀로로' 캐릭터는 K5 승용차량 3대에, 전국적인 열풍을 일으킨 꼬마버스 '타요' 캐릭터는 카니발 승합차량 3대에 적용한다.

어린 자녀를 둔 가족여행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되는 캐릭터카는 kt금호렌터카 홈페이지

(…ktkumhorent.com) 및 콜센터(1588-1230)를 통한 사전예약 후 이용 가능하다. /정해균기자

통신업계 "5세대 이동통신 시장 잡아라"

향후 7년간 552조원 생산유발 효과…58만명 고용 창출

4세대(4G LTE)보다 1000배 빠른 5세대(5G) 이동통신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5G 이동통신은 기존 LTE보다 1000배 빠르게 사람 사물 정보를 초고속으로 연결시켜 실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보통신산업과 타산업 전반을 혁신하는 창조경제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동3사를 중심으로 5G 이동통신 시장 선점을 위한 행보가 발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은 지난달 29일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대토론회'에서 "향후 'ICT 노믹스' 추진을 통해 30년 미래를 이끌어 갈 것"이라며 첫번째 과제로 초고속·초연결적인 네트워크 기반이 될 5G 네트워크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SK텔레콤은 2020년까지 본격적인 5G 이동통신 시대를 여는 세계 최초의 이동사가 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단순한 네트워크 기술의 진화를 넘어 하드웨어, 플랫폼, 서비스 등 ICT 생태계 전체의 발전과 다 산업 융합의 기폭제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은 5G 네트워크 구축계획의 일환으로 11일 중국 상해에서 열린 '모바일 아시아 엑스포(MAE) 2014'에서 이전까지의 속도 한계를 몇 단계 뛰어넘는 데이터 전송속도 3.8Gbps를 시연하는데 성공했다. 이번 3.8Gbps 시연을 시작으로 기가급 초고속 네트워크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과 검증을 통해 5G 핵심 기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황창규 KT 회장은 최근 기가 인프라를 기반으로 융합형 기가토피아 시대를 이끈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KT는 향후 3년간 4조5000억원을 투입해 유무선이 통합된 기가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가 인터넷은 기존 인터넷보다 10배, LTE에 기가 와이파이(WiFi)를 결합한 이종망 융합기술과 구리선 기반 초고속 전송기술은 기존보다 3배 빨라진다.

KT는 장기적으로 5G의 핵심 원천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할 계획이다. 실제 소비자가 다가올 미래 통신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가상화 기지국과 모바일 클라우드를 융합한 새로운 개념의 융합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도 선보일 계획이다.

LG유플러스 역시 지난해 7월 세계적 통신장비 에릭슨과 함께 5G 기술개발 협력에 나섰다.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지난해 7월 11일 에릭슨의 스웨덴 본사를 직접 방문해 한스 베스트베리(Hans Vestberg) 에릭슨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5G 공동기술 개발에 대해 논의했다.

이상철 부회장은 "양사 간 협력이 결실을 맺어 LTE-A뿐 아니라 5G에서도 글로벌 스탠더드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5G 미래 통신기술 확보 및 인프라 구축을 국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 신규 일자리 창출과 해외 시장 선도에 나설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2020년까지 5G 연구개발, 표준화, 기반조성에 1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미래부는 5G가 상용화되면 장비·서비스 부문에서 7년간 국내에서만 552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다. 144조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생기고 58만명의 고용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통신요금 인가제 손본다

미래부 '규제 개선' 위한 토론회 개최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가 가계 통신비 인하로 이어질까"

정부가 지난 1991년부터 20년이 넘게 시행된 이동통신 시장 요금 인가제 폐지를 검토 중이다.

그동안 국내 통신시장에 적용된 요금 인가제는 통신서비스 시장의 독과점성을 완화하기 위해 제정된 제도다. 시장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는 제1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현재 무선시장에선 SK텔레콤이, 유선시장에선 KT가 인가제 대상이다. 두 사업자는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반드시 미래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12일 미래창조과학부 주최로 '통신요금규제 개선 로드맵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변정욱 KISDI 통신전파연구실장은 이날 통신요금 인가제를 보완해 합리적인 대안으로 ▲인가제 보완 ▲인가제 폐지 신고제 보완 ▲완전 신고제 전환 등을 제시했다.

인가제 보완은 현행 인가제를 유지하되 사전 심사는 완화하고 사후 규제는 강화하는 방안이다.

인가제 폐지와 신고제를 보완하자는 안은 제1사업자의 경우 신고 접수된 약관을 심사해 필요 시 보완을 요구하지만 그 밖에 사업자는 요금제 신고 일정기간 후 자동으로 시행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완전 신고제로 전환되면 1위 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가 미래부에 신고만 하면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어 요금 서비스 출시 기간이 빨라진다. 하지만 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할 수 있는 사전적 수단이 부재한 상황이다.

후발사업자인 LG유플러스를 비롯해 일각에선 시장점유율 50%가 넘어가는 사업자가 시장을 자율적으로 주도하게 되면 요금인하가 적절히 이뤄지지 못한다며 요금 인가제 폐지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완전 신고제 전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서예진기자

KT 세계 최초 VoLTE로밍 성공 KT는 12일 차이나모바일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모바일 아시아 엑스포 2014'에서 세계 최초로 로밍 중 VoLTE 통화 시연을 성공했다. 사진은 차이나모바일 부스에서 황창규(오른쪽) KT회장과 시궈화(왼쪽) 차이나모바일 회장이 시연하고 있다. /KT 제공

통신·방송업계 '女心' 공략 본격화

'TV 장보기' 등 서비스 다양

통신업계와 유료방송업계가 구매 의사결정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가진 여성을 겨냥한 서비스를 속속 출시하고 있다.

먼저 충동구매 예방과 더불어 여성의 관계 지향성을 충족해주는 서비스가 눈길을 끈다.

12일 LG유플러스는 캐주얼 SPA브랜드 스파오와 공동으로 카메라, 롱텀에볼루션(LTE) 기반의 사물인터넷 기술이 융합된 'U+보드'를 공개했다.

U+보드는 360도 카메라 기능을 갖춘 멀티미디어 기기로 고객이 옷 입은 모습을 앞면 뿐만 아니라 옆모습, 뒷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또는 이메일로의 사진 전송과 사진 출력 기능도 지원한다.

LG유플러스는 스파오 명동 플래그십 매장에 U+보드를 설치하고 이날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여성의 멀티태스킹 능력에 주목한 서비스도 있다.

올레tv는 홈플러스와 손잡고 이용자들이 TV를 시청하면서 리모컨으로 홈플러스가 제공하는 4만여종 상품을 조회하고 주문할 수 있는 'TV 장보기' 서비스를 선보였다.

TV장보기는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마트 상품과 가격 등 모든 조건에 동일한 조건에서 구매할 수 있다. 홈플러스 매장에서 제공되는 전단지도 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환 인터넷&미디어담당 상무는 "무겁고 부피가 큰 쌀, 생수, 휴지 등과 같은 반복구매형 상품이 이 서비스로 좋은 반응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맞벌이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 줄 동화책 서비스도 등장했다.

티브로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동화책을 읽고 녹음하면 자녀들이 TV를 시청하면서 엄마 또는 아빠의 음성으로 동화를 들을 수 있는 TV 동화 서비스 '마이크북'을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월 4500원(부가세별도)의 정액제 상품으로 세계동화를 비롯한 300여 편이 제공되고 있다.

/서승희기자

INCHEON PENTAPORT ROCK FESTIVAL 2014

AUG 1-3 @송도 달빛축제공원(PENTA PARK)

WWW.PENTAPORTROCK.COM

이승환 KASABIAN TRAVIS

BOYS LIKE GIRLS / CRASH / 데이브레이크

디어클라우드 / 구남과여라이딩스텔라 / 해리빅버튼

THE HORRORS / THE INSPECTOR CLUZO

킹스턴루디스카 / 루디스텔로 / 넘버원코리안

ORANGE RANGE / 페퍼톤스 / 피아

로맨틱펀치 / STARSAILOR / 솔루션스

SUICIDAL TENDENCIES / THORNAPPLE

어반자카파 / 위아더나잇

AND MORE...

태극호 16강 러시아전에 달렸다

넥슨 '피파온라인3' 시뮬레이션 1무2패 가장 많아 1차전 러시아 이기면 조별리그 통과 44%로 나와

태극전사들의 브라질 월드컵 16강행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러시아와의 첫 경기에서 승점 1점 이상을 확보한다면 16강 진출 가능성이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메트로신문이 넥슨의 온라인 축구 게임 '피파온라인3'에 의뢰해 시뮬레이션을 경기당 100회씩 실시한 결과, 태극호의 16강 가능성은 22%에 불과했다. 이번 월드컵에 참가하는 H조 4개국 대표팀의 최신 선수 정보를 반영한 이번 시뮬레이션에서 한국은 1무2패를 기록할 가능성이 27%로 가장 높았다. 1승1무1패(15%), 2무1패(14%), 1승2패(10%), 3패(9%) 등이 뒤를 이었다. 조별리그를 자력으로 통과할 수 있는 최소 승점인 5점을 획득하는 경우는 2승1무(9%), 1승2무(6%), 2승1패(4%), 3승(3%) 등 22%에 불과하다. 다른 팀의 경기결과에 따라 16강을 노려볼 수 있는 1승1무1패(4점)가 15%인 것이 그나마 위안거리다.

다만 1차전인 러시아와의 경기에서 승점을 따면 16강 진출가능성이 44%로 올라갔다.

경기별로는 2차전인 알제리와의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00회 시뮬레이션에서 31승 45무 24패를 기록해 1점 이상의 승점을 챙길 확률은 76%에 달했다.

러시아전은 23승 34무 43패로 다소 열세로 나타났다. 마지막 상대인 벨기에 전은 14승 23무 63패라는 다소 실망스런 결과다.

브라질 월드컵 중계를 맡은 장지현 축구 해설위원은 "이번 시뮬레이션에 조직력 등이 반영되지 않아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러시아와 알제리를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 승점을 따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6강은 충분히 기대할만 하다"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콘솔 게임 해외선 잘나간다

이베이 "9초에 1대, 하루 1만대 팔려"

국내에서는 큰 인기가 없는 콘솔 게임이 해외에서는 여전히 잘 팔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사이트 이베이는 테트리스 30주년을 기념해 최근 6개월간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 13개 국가의 비디오 콘솔게임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9초에 한 대, 매일 1만 대가 팔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10000 54000 400000 250000

비디오 게임 타이틀은 2초에 한 개씩 매일 5만4000개가 판매됐다.

해당 기간 각국 이베이에서 팔려나간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와 소니 플레이스테이션3는 25만대로 집계됐다. 특히 플레이스테이션4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엑스박스 원보다 판매량이 높았다.

제품별로 보면 플레이스테이션3는 캐나다, 호주,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에서 엑스박스360의 판매량을 넘어섰다. 반면 미국, 영국, 브라질,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위스, 러시아에서는 엑스박스360이 플레이스테이션3보다 더 인기였다.

가장 많이 팔린 타이틀은 총싸움 게임 '콜 오브 듀티'로 40만개를 넘었다.

/박성훈기자

'삼국지책략전' 업데이트

천하제패라는 원대한 꿈을 실현시킬 기회가 생겼다.

하이브로는 전통 삼국지 모바일게임 '삼국지책략전' 출시 1주년을 맞아 신규 콘텐츠 '천하제패'를 오픈했다고 12일 밝혔다.

천하제패에서는 전설의 게임인 코에이의 '삼국지3'와 비슷한 턴방식을 유지해 전투 전략·이벤트 등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스토리 기반으로 천하를 통일하는 시나리오는 물론 유저들간 1대1 매치를 벌이는 일기토전도 즐길 수 있다.

하이브로는 신규 콘텐츠 오픈을 기념해 매일 출석 기념 아이템을 지급하는 등의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이국명기자

스마트폰 콘솔 수준 게임 '눈길'

넷마블 '레이븐' '크로노블레이드' 7월 출격 엘리먼츠 '서머너즈 워' 게임 한류몰이 나서

모바일게임의 수준이 높아진 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급기야 콘솔게임 수준의 퀄리티를 자랑하는 타이틀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국내 1위 모바일게임사 CJ넷마블이 여름방학 시즌에 출시할 대작 모바일 2종 '크로노블레이드'와 '레이븐'은 벌써부터 게이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크로노블레이드'(사진)는 Grand Theft Auto(GTA) 시리즈의 아버지 데이브 존스와 디아블로의 메인 기획자로 참여했던 스티그 헤드런드가 개발한 게임이다.

역동적 전투 스킬과 콤보가 어우러진 액션 RPG로 콘솔급의 3D 그래픽과 파워풀한 타격액션을 자랑한다. 이 외 판타지, SF 등 시공간을 초월한 방대한 세계관과 2000여 개 이상의 아이템 등으로 액션 RPG의 진수를 보일 예정이다.

'레이븐'은 한편의 3D 판타지 영화를 연상시키는 그래픽과 최고 수준의 액션성을 보유한 블록버스터급 액션 RPG로 총 1000종에 이르는 독특한 장비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용자들은 무기별 보유한 소환수 스킬, 세트 방어구 등 각기 다른 속성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대규모 사냥(레이드), 이용자간 대결(PVP), 길드전 등에 도전할 수 있다.

'넥스트 플로어'의 박혀트로 미드코어(고퀄리티의 모바일게임) 장르의 선두주자로 떠오른 게임빌은 신작 '엘리먼츠', 에픽히어로즈'를 글로벌 구글 플레이에 출시하고 '모바일 게임 한류' 붐을 조성 중이다.

'엘리먼츠'는 게임빌이 우크라이나 개발사인 Zadzen과 손잡고 첫선을 보인 게임으로 3D 정통 액션 RPG를 표방하며 '핵앤슬래시(Hack&Slash)'와 '실시간 레이드'가 특징이다.

한국어는 물론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9개 언어로 서비스되며 특히 한번의 터치로 이동, 공격 등 연출이 가능한 심글 탭과 반자동 시스템이 탑재되어 대중성을 극대화했다는 평이다.

컴투스는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로 출사표를 던졌다.

미국, 일본, 대만, 독일, 스페인 등 전세계 160여 개국에 안드로이드 버전의 '서머너즈 워'를 선보였다. 국가 권역별로 서버를 오픈하고 안정적인 글로벌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해외에서도 원활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3D 그래픽으로 구현된 화려한 전투 플레이부터 개성 강한 400여 가지의 몬스터, 20여 종의 던전,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과 화신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레이븐을 만든 STPLAY의 유석호 대표는 "PC온라인 게임을 방불케 하는 고품질 그래픽과 게임성을 갖춰 '리니지',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블레이드앤소울' 등의 PC 온라인 게임을 경험한 이용자들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모바일게임의 미래를 제시했다.

/박성훈기자

인대질환 및 관절염 등 10여분이면 치료 끝 진화하는 신개념 인대 및 관절 DNA 주사

재발되거나 오래된 인대 질환까지 치료 가능
환자 1명을 전문의 등 4명이 전담하는 체계화된 치료 선봬

유명 배우 S양의 아버지 S씨는 평소 우측 팔꿈치 내측 건초염으로 여러 병원에서 인대 증식 주사제와 충격파 치료, 줄기세포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효과가 오래 가지 않고 자주 재발해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했다. 수술이 무섭고 주변 사람들의 반대가 심해 결국 S씨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위해 S양과 같은 방송에 출현중인 가수 K씨와 방송인 G씨의 소개로 강남초이스병원 여의도점을 방문했다.

담당 주치의인 이승주 강남초이스병원 여의도점 원장은 우측 주관절 내측 건초염 및 척골 신경염으로 S씨의 상태를 진단했다. 이후 국내 유명 연예인들이 주로 받아 이름이 알려진 강남초이스병원의 유전자 줄기세포 주사로 치료를 실시했다. 또 부종 감소 및 염증 치료를 위해 인대 재생 주사를 병행했다. 치료를 받은 S씨의 통증은 호전됐다.

이처럼 3년 전부터 강남초이스병원에서 시행됐던 인대 및 신경 치료는 기존의 인대 증식 및 스테로이드 주사와는 다른 치료법으로 일반적인 인대질환뿐만 아니라 재발되거나 오래된 인대 질환, 신경 및 관절염까지 치료가 가능한 비수술적인 치료다. 특히 스테로이드에 의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고, 가격이 비싸고 치료 결과가 불확실한 줄기세포 주사의 단점을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승주(오른쪽) 강남초이스병원 여의도점 원장과 가수 K씨 /강남초이스병원 제공

치료 후 S씨는 완벽한 재활을 위해 강남초이스병원의 핵심 치료인 도수운동재활치료센터에서 체계적인 3차원 생역학적 도수치료와 근육 강화 운동치료를 주 2회씩 1개월 받았다. 현재 S씨는 일상생활에 불편 없이 직장생활을 잘하고 있다.

◆환자의 치료와 빠른 회복에 중점을 둔 시스템 갖춰

수많은 유명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이 주로 찾아 유명해진 강남초이스병원은 내원 환자의 질환에 따라 인대 증식 또는 유전자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시행한다. 또 병원은 재발을 방지하고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환자의 나이, 증상에 따라 맞춤형 진료를 실시한다.

더욱이 환자 1명을 전문의, 도수치료사, 운동치료사 및 물리치료사 4명이 전담하는 통합 진단·치료 시스템을 구축해 치유 치료를 선진·체계화했다. 즉 환자의 치료와 빠른 회복에 중점을 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강남초이스병원은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인근의 본원 외에 홍대입구역 근처에 직장인들 및 중·장년층들을 위한 목, 허리 및 어깨 통증 치료, 체형 교정(일자목, 골반 불균형, 휜다리, 측만증 등) 전문 치료클리닉을 개설했다. 3차원 생역학 디스크·관절 치료센터, 연골과 인대 치료·재생센터를 설립해 합리적인 치료를 하고 있다.

문의 1800-3800

/황재용기자 hsoul38

더위 식히는 찬 음식, 내 몸에는 '독'이 될수도…

0℃ 이하 음식물 섭취 자제하고 미온수 마시는 것이 좋아

날씨가 더워지자 사람들은 찬 음료나 찬 음식을 자주 찾는다. 하지만 이런 차가움이 내 몸에는 독이 될 수 있다.

◆몸에 이상 가져오는 '한랭자극'

우리 몸의 체온은 37℃다. 체온을 기준으로 지나치게 차가운 음식을 섭취할 때 우리 몸은 자극을 받게 된다. 바로 '한랭자극'이다.

한랭자극은 조혈소가 있는 장관 내장계를 직접 공격한다. 조혈소가 면역력을 담당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생각하면 한랭자극의 위험성은 그만큼 큰 것이다. 또 이 같은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면역계에 이상이 생기는 것은 물론 각종 세균에도 취약해진다.

게다가 0℃ 미만의 얼음을 계속 먹으면 식도, 위, 장 등이 냉해지면서 혈액이 위장관으로 몰리게 돼 다른 기관으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든다. 더욱이 몸이 냉해지면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

성인보다 자제력이 약한 어린이나 청소년은 다소 위험하다. 이들은 여름철이 되면 주로 아이스크림이나 얼음 음료 등으로 더위를 식히는데 습관적으로 차가운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각종 질병이 생길 수 있다. 또 비염이나 아토피 등 알레르기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면역력 약화가 직접적으로 질환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한랭자극을 피하기 위해 음식물을 가려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스크림, 탄산 음료 등은 물론 차가운 맥주 등의 술도 한랭자극을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량 섭취를 피해야 한다. 특히 0℃ 이하의 음식을 섭취를 자제하고 물을 마실 때도 얼음 자체를 먹기보다는 미온수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인삼, 맥문동, 오미자 등으로 만든 '생맥산'과 같이 더위에 지친 위나 장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음식이 도움이 되며 땀이 많이 났을 때는 황기를 다려 먹는 것이 효과적이다.

김남선 영동한의원 원장은 "차가운 물을 마시면 몸이 열을 빼앗기 체온이 내려가는데 이렇게 되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 에너지를 차가운 물에 빼앗기는 꼴"이라며 "차가운 음식물 섭취를 줄여 몸의 에너지를 지키고 면역 신경계를 건강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이른둥이 사연 공모전' 개최

9월 26일까지 캠페인 사무국서 사연 접수 받아

대한신생아학회(회장 남궁란)가 국내 이른둥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증대하기 위한 '제3회 이른둥이 사연 공모전'을 9월 26일까지 진행한다.

공모전은 '제3회 이른둥이 희망찾기 대국민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른둥이와 관련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형식과 분량의 제한 없이 캠페인 사무국으로 사연을 보내면 된다. 한편 학회는 이른둥이 희망찾기 캠페인을 통해 이른둥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고도비만 체중 조절 프로그램' 운영

한림대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비만클리닉이 '고도비만 체중 조절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접수는 21일까지다.

병원은 개인별로 5차에 걸쳐 12주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혈액·혈압·비만도검사 등을 통해 건강 위험요소와 합병증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학생들에게는 영양 평가를 통한 맞춤 영양 처방이 제공되며 체중조절을 위한 전반적인 계획과 상담도 이뤄진다.

박경희 한림대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아이들에게는 비만치료에 대한 동기 부여와 생활습관 개선, 행동 교정에 대한 기본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 혜택에서 소외된 저소득층 소아·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온라인몰 '쌈바 월드컵' 이벤트 풍성

파티, 각종 할인 및 쇼킹 딜 등 다양

월드컵 시즌이 돌아왔다. 온라인몰에서도 이색적이고 실속 있는 월드컵 프로모션을 선보이고 있다.

G마켓은 12일부터 27일까지 16일간 '덕카박스'를 7900원에 250개 한정 판매한다. 사은품인 붉은악마 공식 응원엠블럼, G마켓 기프트 카드(5000원)를 기본 구성으로 아이패드 미니2(16G), SK Ⅱ 클리어 로션 세트, 월드컵 공식티셔츠, G마켓 기프트카드(1만원), 응원 간식 중 한 가지의 랜덤 선물을 추가로 제공한다.

G마켓X붉은악마 '대한민국 16강 기원 행운릴레이'도 진행한다. 대한민국 대표팀의 예선 경기 결과를 입력해 맞힌 고객에게 G캐시 1000원을 증정하며, 선착순 1만명에게는 매일 G캐시 100원을 증정한다. G마켓 앱을 켜고 '대한민국 응원'한 고객에게는 모바일 20%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옥션은 브라질 월드컵 공식 후원사 제품 등 45만 개의 경품을 증정하는 '옥션 스타디움' 프로모션을 벌인다. 오는 27일까지 이벤트 페이지에 응원 댓글을 남기면 경품 행사에 자동 응모된다.

존슨앤드존슨은 월드컵 에보벡 선물세트와 리스테린 쿨민트를 제공하고, 질레트는 브라질 한정판 비아3면도기 3000개와 프리미엄 축구공 10개를 증정하는 등 총 2만 명에게 제품을 증정한다. 또 모바일 30% 할인쿠폰, 모바일 10% 할인쿠폰 등을 제공한다.

인터파크에서는 월드컵 기념 프로모션 'go! go! Festival'을 실시한다. 오는 18일 대한민국과 러시아 경기를 시작으로 일제리, 벨기에 경기 스코어와 첫골 주인공을 맞춘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인터파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I-POINT를 각각 5000점, 2000점 증정한다.

11번가는 월드컵 공식 후원사인 소니의 인기 전자제품을 이달 30일까지 특별 가격에 할인 판매한다.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축구 응원사진과 댓글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총 11명을 선정해 소니 제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실시한다. 오는 22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서울 잠실 롯데월드에서 열리는 '쇼킹딜 올나잇 파티'도 기획했다. 롯데월드 인기 15종 놀이기구와 씨스타-케이윌-정기고-매드클라운 등이 출연하는 콘서트, 대한민국 대 알제리 응원전 등 이 3가지를 파티 입장권 하나로 즐길 수 있다. 8000장 한정 수량으로 1만1000원에 판매된다.

롯데닷컴에서는 12일부터 24일까지 '대한민국 승리의 함성 Victory Korea Festival'을 연다. 우리 대표팀의 총 득점을 맞혀라! 이벤트도 준비했다. 한국의 첫 경기 시작 전날인 17일까지 댓글로 득점을 입력하고, 대회가 끝난 이후 추첨을 통해 도미노피자 스위트 하든엣지 L 등을 상품으로 준다.

AK몰은 29일까지 '국가대표 축구팀 응원 이벤트'를 진행한다. 국가대표팀 응원UCC를 공유하고 참여 응원하고 친구를 태그하면 추첨을 통해 브라질 월드컵 공인구 브라주카 등을 증정한다. 또 26일까지 '예선전 승패 맞히기 이벤트'를 통해 경품을 증정한다. 대한민국 월드컵 조별 예선전 3개 경기 성적을 모두 맞힌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60명에게 적립금을 최고 10만원까지 제공한다.

/황재용기자 metro@metroseoul.co.kr

NS홈쇼핑 "협력中企를 찾습니다"

기업 홍보영상 제작·홈쇼핑 방송 론칭 지원

홈쇼핑 업계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관내 중소 벤처기업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해 나서 관심을 끈다.

NS홈쇼핑(대표 도상철)은 오는 20일까지 성남시 산하 성남산업진흥재단과 손잡고 홈쇼핑 방송에 진출할 신규 중소기업(성남시 관내)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총 3개사를 선정해 NS홈쇼핑의 재능 기부로 기업홍보 동영상 무료 제작과 방송을 지원해주고, 방송 송출료의 40%를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제품별 프라임타임 시간대 방송 편성 혜택 지원과 추가 편성 등의 혜택도 준다.

지원업체는 성남산업진흥재단의 내·외부 전문가 심사위원이 선정한다. 대상 기업 6개를 선정하는 1차 심사와 방송의 적합성, 제품품질 등을 심사하는 NS홈쇼핑의 2차 심사로 최종 3개사를 고르게 된다.

제출서류 양식은 성남산업진흥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20일 오후 6시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성남산업진흥재단 홈페이지의 사업공고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NS홈쇼핑 회사 측은 "건전한 유통 문화 정착을 위해 성남시와 함께 이번 협력사 모집을 진행하게 됐다"며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아이디어 넘치고 건실한 중소기업의 많은 도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CU, 8천개 매장에 태극기 펄럭

독자경영 전환과 대한민국 응원 메시지 담아

앞으로 전국 CU점포는 태극기가 펄럭일 것이다.

'CU(씨유)'가 오는 8월 15일 광복절까지 전국 8000여 점포에 태극기를 게양한다. 유니폼에도 태극기 뱃지를 달고 PB상품에는 태극 문양을 부각할 예정이다.

순수 대한민국 브랜드로서 독자 경영의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고 국민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대한민국을 응원한다는 취지다.

CU운영사인 BGF리테일은 지난달 기업공개를 통해 일본 훼미리마트와 맺은 라이선스계약을 종료하고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지원한 자금까지 모두 걷어내면서 순수 대한민국 브랜드 CU로의 홀로서기를 시작했다.

태극기에 대한 고객 반응도 긍정적이다. CU블로그와 페이스북에는 '개념있는 편의점, 멋지네요', '편의점에서도 태극기를 달아 점주님이 애국자이신가 봤어요' 등 고객들의 응원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는 것이다.

고객들의 호응이 높아짐에 따라 CU는 '태극기 인증샷 이벤트'까지 기획했다. 이달 30일까지 태극기가 게양된 CU매장의 모습을 찍어 CU홈페이지에 등록하면 추첨을 통해 총 200명에게 'CU모바일상품권(1만원)'을 증정한다.

태극기 관련 상품 판매도 시작한다. 게양용 태극기를 비롯해 열쇠고리, 스티커 등 3종 판매를 계속한다. 월드컵 대표팀 첫 경기 전일인 17일에는 응원용 미니 태극기 8만개(수량 한정)를 전국 CU에서 무료 증정한다.

태극기 물결은 이후 CU의 대한민국 응원행사에서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오는 7월 '우리 영토 독도 응원탐방기' 행사를 통해 BGF리테일 임직원들과 CU가맹점주들이 독도를 직접 방문해 독도경비대에 위문품을 전달하고 8월에는 CU원정대를 선발, 자전거 국토대장정에 나선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CU는 21세기 한국형 편의점으로 고객들에게 편의점 그 이상의 가치를 전하고자 한다"며 "전국 8000여 점포에 태극기를 게양해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대한민국 순수 브랜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CU는 '창립기념 토종브랜드 1+1 행사'를 통해 주요 카테고리 총 18개 인기 상품들의 증정 행사를 6월 한 달간 실시한다. 월드컵 시즌에는 16강 기원 'Special One' 할인, 야식 먹거리 행사, CU멤버십 더블적립 행사 등을 벌인다.

/정영일기자

결혼 미루는 자녀 때문에…올해도 '축의금 품앗이'만 하다 끝?

주변 결혼식은 늘어나고, 결혼 적령기 자녀는 느긋하고 속 타는 부모들 결혼 상담 부쩍늘어

서울 서초구에 거주 중인 김상중 씨(60세)는 요즘 걱정이 많다. 부쩍 많아진 결혼식에 축의금 지출은 늘어가는데 정작 딸의 결혼 소식은 잠잠하기 때문. "3년 새 주변에 결혼식이 크게 늘었어요. 정작 우리 애는 느긋하고 걱정이 크죠."

정선화씨(58세·강남구)도 아들의 혼사에 마음이 쓰인다고 말한다. "싹싹한 며느리, 예쁜 손주 본 친구들 볼 때마다 참 부럽죠. 올해도 봉투만 보내다가 지나버리면 어쩌나 싶고…"

여전히 미혼으로 남은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걱정스럽기만 하다. 소위 '축의금 품앗이' 문화로 인해 부모들은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라도 주변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을 의무처럼 여기곤 한다. 하지만 초혼 연령이 높아 지고 자녀의 결혼이 늦어지면서 올해도 축의금만 내다 끝나는 건 아닐까 하며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다.

가연결혼정보(주)의 개미숙 이사는 최근 결혼적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적은 상담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말한다. "올해 들어 자녀분들이 어서 짝을 찾길 바라는 부모님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녀가 좋은 짝을 만나 안정된 모습을 보고 싶은 부모들은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없다 며 결혼을 미루는 자녀를 위한 해결책으로 결혼정보회사를 찾고 있다.

박경원씨(55세·송파구)는 작년 초 딸(28세)의 결혼 상담을 위해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다. 어머지 만큼이나 남편에 대한 기대가 컸던 딸은 결혼정보회사에 희구적이 있다고 한다. 그 결과 딸이 원하는 이성상과 부모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 사윗감을 만나 지난 2월 결혼식을 올렸다.

박씨는 "딸 가진 부모 마음 다 똑같나.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았으면 했다.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던 이유도, 원하는 사윗감에 대해 솔직하게 터놓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에서였다. 지금은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사위를 뒀다"며 웃었다.

가연결혼정보
(문의 080-586-5000)

가연결혼정보의 특별한 한정혜택!

10% 할인, 12개월 무이자 할부 이벤트 등 선보여…

공기업 연구원 정성호씨(31세)는 최근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다.

누구의 권유나 추천도 아닌, 본인의 결정이었다. "바쁘게 살다보니 해가 바뀌고 세월도 바뀌었더라고요. 올해 안에 저도 제 짝과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습니다. 급하다고 아무나 만날 순 없고, 제가 원하는 상대를 찾고 싶었어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배우자를 찾는 미혼남녀들이 늘고 있다.

행복한 결혼은 사랑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 가능하다는 믿음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결혼정보회사 찾는 법 따로 있다

어떻게든 하루빨리 짝을 찾고 싶은 마음에 결혼정보회사를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조급함만 앞서 아무 회사나 선택 하는 것은 금물.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자.

(결혼정보회사 가입 시 확인할 것)

공정위 표준약관 100% 준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준수 여부
회사의 규모와 공신력
서비스 품질, 사후 관리, 전문성 갖춘 인력, 시설 등
철저한 회원 신원인증
미혼, 학력, 재직 등 엄격한 회원 신원인증 절차
개인정보 보안 관리
회원 개인정보에 철저한 보안 및 관리
회원 매칭 시스템
전문적인 커플 매니저에 의한 세심한 관리

결혼정보분야 3년 연속 1위 기업

꾸준히 신뢰받는 이유는

가연은 결혼정보분야에서 3년 연속 1위(2011,2012,2013랭키닷컴 기준)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 대상 및 대한민국 중소 중견기업 혁신대상 3년 연속 수상,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 '2014 국가브랜드대상' 등 각종 상을 수상하며 높은 고객 만족도를 입증했다.

이렇듯 높은 고객만족도를 자랑하게 된 중심에는 가연이 개발한 독자적인 매칭서비스가 있다. 1:1 원칙의 매칭에 의존했던 업계에서 꾸준히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가연만의 매칭시스템인 GMS(Gayeon Matching System)를 기반으로 커플매니저 2명이 1명의 회원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성혼 컨설팅 시스템을 마련하면서 ISO9001, INNOBIZ 벤처기업 인증 등을 통해 그 우수함을 인정받기도 했다.

가연타워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

[illegible] Lee Season Nets 가연으로 [illegible]

가연결혼정보
(문의 080-586-5000)

"행복한 결혼을 위한 기준은 다 다르니까, 등급은 필요 없죠"

결혼정보회사는 직업이나 경제적 능력만으로 평가 하고 '등급'을 매길 것이라는 편견이 있다. 그러나 가연결혼정보(주) 조인상 커플매니저는 오직 인연을 찾아 드릴 뿐, 등급은 없다고 말한다.

◇ 결혼정보회사에 등급은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인가요?

결혼정보회사에서 등급을 나눌 거라는 선입관을 가진 분들이 계시지만 저희 가연에서는 등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등급 개념 자체가 불필요해요. 저희는 고객이 원하는 배우자 상대를 찾아 드릴 뿐, 등급에 따라 매칭하는 곳이 아니니까요.

◇ 등급은 없더라도 조건은 여전히 중요하지 않나요?

조건이 중요한 이유는 결혼정보회사를 찾아오시는 분들마다 배우자에 대해 바라는 조건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객이 원하는 이상형에 가장 가까운 배우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상담 시 다양한 이상형 조건들을 수집하죠. 어떤 분은 배우자가 공무원이길 바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같은 종교'이길 바랄 수도 있는 것처럼 누구나 바라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와 가장 가까운 배우자를 찾아드리기 위해 배우지 조건에 대한 상담은 필수 과정인 거죠.

가연결혼정보(주) 조인상 팀장

◇ 결혼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께 조언을 드린다면?

적극적인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평생 함께할 사람을 찾는 일인 만큼 의지를 갖고 노력하셔야 하죠. 결혼정보회사의 성혼 프로그램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경험해본 바로는 적극적인 분들일수록 매칭 성공률도 높더라고요. 기회는 노력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 무료상담전화
080-586-5000

가연결혼정보

아쿠아리움, '월드컵 할인 이벤트'

태극전사 선전 기원 다양한 이벤트 진행

도심 속 수중 동물원 코엑스 아쿠아리움이 브라질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먼저 아쿠아리움은 13일부터 30일까지 '빨간 티셔츠 입고 할인 받자!' 이벤트를 진행한다. 해당 기간에 빨간 티셔츠를 착용한 고객에게는 30%의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또 18일부터 30일까지 첫 골을 넣은 선수와 이름이 같은 경우에는 아쿠아리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 대표팀이 첫 승을 올리면 승리 당일에는 모든 고객은 입장료가 50% 할인된다.

이와 함께 아쿠아리움은 대한민국 대표팀의 선전을 위한 특별 전시 '축구하는 가든일'을 선보인다. 전시는 다음달 13일까지 아쿠아리움 내 세계의 바다 구역 '가든일 수조'에서 관람 가능하다. 가든일은 모래 안에 집을 지어놓고 사는 물고기다. /황재용기자 hsoul38@

라틴썸머 맛보세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가 12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서 후레쉬하고 건강한 이미지의 라틴 음식을 재해석한 여름 한정메뉴 '라틴썸머'를 선보이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안영미, 가슴으로 또 한 번 웃음

모바일 쇼핑앱 '쿠차' 광고 화제

최근 여자 신동엽으로 불리며 19금 개그를 선보이고 있는 안영미가 한 기자회견에서 단상 위에 올라가 가슴을 모으는 이유를 밝혀 화제다. 신동엽의 "그렇게 모으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모아야 볼만하고 살만한 것 아니겠어?"라고 답한 그녀의 기자회견은 바로 모바일 쇼핑앱 쿠차(COOCHA)의 광고 촬영 현장.

쿠차는 일반 쇼핑앱과 달리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홈쇼핑 등 요즘 뜨는 모든 딜을 모아 한 번에 쉽게 쇼핑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안영미는 "이번 촬영에 임하며 쿠차를 다운 받고 필요한 물건들을 저렴하게 잘 살 수 있었다"고 전했다. 쿠차는 안드로이드 마켓,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검색해 다운받을 수 있다.

한편 쿠차 광고 영상은 유튜브 쿠차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병근기자

월드컵은 '레드·옐로우' 룩으로

붉은악마 티셔츠가 식상하다? …'원 포인트' 연출로 시선 끌기

월드컵의 응원 패션도 진화하고 있다.

남들과 똑같은 붉은 악마 티셔츠를 이용한 패션에 식상함을 느꼈다면 좀 더 과감하고 색다른 아이템으로 들뜬 분위기를 더욱 '업' 시킬 수 있다.

한국을 상징하는 붉은색과 개최국인 브라질에서 영감을 얻은 노란색 아이템으로 세련된 룩을 연출해 보자.

◆그래도 붉은 색은 절대 사수!

아무리 개성 있는 응원 패션을 준비했다고 해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붉은 색상은 절대 사수해야 한다.

여성이라면 민소매의 통이 넓은 레드 셔츠로 편안함을 강조한 응원룩이 안성맞춤이다. 이때 단추 한두개 정도는 오픈 하고 데님 쇼츠를 매치하면 활동적이면서 은근한 섹시함을 뽐낼 수 있다.

붉은 쇼츠로도 월드컵 패션을 완성할 수 있다. 어중간한 길이보다는 아찔한 길이의 쇼츠를 선택하고 화이트 티셔츠나 크롭탑을 매치한다면 가벼우면서 깔끔한 이미지로 연출 가능하다.

오일릴리(사진 위)에서 선보인 레드 원피스도 이목을 끈다. 소매를 자연스럽게 걷어 올리고 까만색 슬립온을 매치하면 발랄하고 상큼한 느낌을 전달한다.

◆노란색으로 브라질 느낌 물씬

현지에서 직접 월드컵의 열기를 느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노란색 의상으로도 브라질의 기운을 만끽할 수 있다.

그라픽 플라스틱의 노란색 프레임 선글라스(가운데)는 밋밋한 옷에 선글라스 하나만으로도 멋을 더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

월드컵 축제인 만큼 화려한 패턴에 색감이 선명한 의상과 매치하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다.

갤러리어클락에서 선보인 실리콘 스트랩의 아이스워치 시계(아래)는 스포티한 월드컵 스타일에 포인트 액세서리로 안성맞춤이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야간 라이딩 기본 안전수칙 꼭 지키자

시야확보 어려워 헬멧착용·감속운전 필수

야간 라이딩의 기본은 첫째도 둘째도 안전이다. 도로교통공단이 2008~2012년 최근 5년간 자전거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약 6만 건의 사고 발생으로 사상자는 1500여 명에 달했다. 지난 2010년 이후 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야간 라이딩은 낮보다 시야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안전에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이것만큼은 지키자

야간라이딩 시에는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 액세서리가 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전거가 있음을 알리는 전조등과 후미등이다.

전조등은 자전거의 위치를 알리는 기본적인 역할과 동시에 라이더의 시야를 확보하는 역할도 한다. 특히 레이저 후미등은 바닥에서 나오는 레이저 빛이 주행 구역을 선으로 표시해 주기 때문에 보행자나 차량이 일정 구역 내 접근 하지 않도록 해 안전 운행에 도움이 된다.

낮이건 밤이건 필수 안전수칙 첫번째는 헬멧 착용이다. 헬멧은 급정거 등으로 사고가 날 경우 가장 중요한 신체부위인 머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헬멧을 고를 때는 사용자의 머리 사이즈에 맞는 제품을 고르고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두 번째는 저속주행이다. 어디서 갑자기 사람이 튀어 나올지 모른다. 이어폰 등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전거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며 갑작스러운 방향전환에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행 시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DMB를 시청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다.

◆확실한 변속·감속 자전거

야간 라이딩에는 빠른 주행이 가능하면서도 안정적인 감속이 가능한 자전거가 좋다.

알톤스포츠의 로드마스터 '816RA'는 시마노2400(클라리스) 16단 변속레버 일체형 쉬프터를 사용해 라이딩 중 변속이 용이하다.

보드바이크인 로드마스터 포틴(Fourteen)은 시마노 14단 기어에 안정적인 변속이 가능한 ST 1 변속레버를 갖추고 있다.

'알톤 R6021' 역시 알루미늄 림과 브레이크가 장착돼 감속 효과가 뛰어나다. /김학철기자

비발디파크 오션월드 '시즌권' '특별균일가' 출시

비발디파크 오션월드가 오션월드를 알뜰하게 즐기려는 고객들을 위해 '시즌권'과 '특별 균일가'를 선보인다.

먼저 오션월드는 8월 31일까지 '2014 오션월드 시즌권'을 판매한다. 시즌권은 사용 기간 내 시즌권 구매자에 한해 1일 1회 오션월드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 온라인을 통해 구입 가능하다. 또 주말(토·일요일)에는 현장에서도 시즌권을 구입할 수 있다. 오션월드는 가족 단위 고객들을 위한 '시즌권 가족권'도 판매 중이다.

이와 함께 오션월드는 오는 27일까지 KB국민카드 전회원(선불카드 제외)을 대상으로 'KB국민카드 특별 균일가' 이벤트를 진행한다. 일반 정상가가 6만원인 실내 락커 룸을 이용권을 2만원에 살 수 있다. /황재용기자

열심히 응원하고 휴가도 즐기세요~

유통업계 월드컵 이벤트 러시

불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각종 사건 이후 사회적 분위기로 소비가 많이 줄어들면서 유통업계의 시름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통업계가 월드컵과 휴가철 이슈를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불황 타계에 나섰다.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 지원금 마케팅이다. 지원금 마케팅은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지원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프로모션이다.

◆월드컵 지원금으로 짜릿하게

국제축구연맹(FIFA) 공식 후원사인 코카콜라는 월드컵 응원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 응원지원금과 응원 도구 세트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자사 페이스북을 통해 오는 30일까지 벌이고 있다. 월드컵 응원곡(The World is Ours)에 맞춰 '나만의 퍼포먼스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한 후 이벤트 페이지에 주소를 남기면 응모가 완료된다.

네티즌 투표를 통해 매주 상위 10명을 선정, 응원지원금 100만 원(1명)과 코카콜라 응원 박스(9명)를 제공한다. 이 상품에는 응원 스카프·컬러 박·비치 타월·브라질 보틀·코루라기·컨투어 보틀·코루라기·컨투어 드림컵·코카콜라 브라질 축구공·코카콜라 공식 프리미엄 축구공·마스코트 플레코 인형 중 5개의 응원도구가 임의로 구성된다.

축구 국가대표팀이 입는 공식 슈트와 셔츠 및 넥타이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있다.

축구 국가대표팀의 공식 단복을 후원하고 있는 삼성에버랜드 패션부문의 대표 남성복 브랜드 갤럭시가 진행하고 있는 "2014명 승리여 함성을 브라질로 보내자!" 이벤트다.

◆휴가비 지원에 선물까지

휴가철을 맞아 휴가비를 지원해주는 이벤트도 전개 중이다.

감자칩 브랜드 프링글스는 축구 국가대표팀을 응원하는 의미로 4개 대학 축구팀이 참여하는 프링글스 드림컵 대회를 개최하고 여름 휴가비를 지원하는 '막강 팬심을 보여줘' 페이스북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막강 팬심을 보여줘' 이벤트는 오는 19일까지 프링글스 코리아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드림컵 대회에 참가한 4개 대학 축구팀 가운데 한 팀을 선정해 '응원단장'에 지원하고 팬에게 가장 많은 투표를 받으면 여름 휴가비 100만원과 프링글스 27일 개봉 예정 라이브매치 관람(코엑스 메가박스 3D관) 티켓 등 풍성한 선물을 제공한다. 2위~4위 단장에게도 휴가 지원금 50만원 등이 제공된다.

웅진식품은 여행 지원금을 제공하는 '하늘보리 물관엔지' 프로모션을 오는 25일까지 실시한다. 하늘보리 공식 페이스북에서 진행되며 일상생활 속에서 열 받고 황당했던 경험을 이벤트 페이지에 100자 이내로 남기면 완료된다. 당첨자에게는 여행 지원금 100만원(1명), 2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30명), 대학생들이 1주일간 기차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내일로 티켓' 등을 선물로 준다.

◆여섯 지원금 제공 이벤트

뉴욕 오리지널 라이프스타일 음료 브랜드 글라소 비타민워터는 미래의 아티스트를 위해 지원금 제공 이벤트인 '너의 색깔을 보여줘'를 글라소지원 을 자사 페이스북을 통해 오는 7월 31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자신만의 색깔과 특별한 재능을 담아 영상·사진·음원 세 가지 부문으로 작품과 스토리를 업로드 하면 작품성·독창성·스토리 세 가지 기준의 심사를 통해 총 6명에게 지원금 100만원씩을

건강과 맛을 한번에 즐기는 '연어요리'

EPA, DHA등의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는 연어는 풍부한 영양소와 요리하기 비교적 어렵지 않은 식재료로 사랑받고 있다. 최근에는 캔으로도 손쉬운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어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연어를 더욱 맛있고 품 나게 즐길 수 있는 레시피를 소개한다. 자료 제공 메뉴판닷컴(www.menupan.com)

◆연어오차즈케

분량: 2인분 / 난이도: 초보환영 / 열량: 386㎉ / 조리시간: 30분

[재료] 밥 2공기, 연어 100g, 물 3~5컵, 녹차 1개, 김치 약간, 깻잎 1~2장, 김·소금·레몬 약간

1. 물에 녹차티백을 넣어 3~5분간 녹찻물을 우려낸 후 티백을 제거하고 물을 끓인다.

2. 연어는 소금, 레몬으로 밑간을 하고, 한 입 크기의 주사위 모양으로 손질해 구워낸다.

3. 김치는 송송 썰어 준비하고 깻잎은 얇게 채 썰어 물에 담가두며 김은 가위로 얇게 잘라 준비한다.

4. 밥 위에 김치와 깻잎·연어·김을 올리고 준비된 뜨거운 국물을 붓는다.

◆김치연어롤

분량: 2인분 / 난이도: 초보환영 / 열량: 630㎉ / 조리시간: 60분

[재료] 백김치잎 5장, 훈제연어 8장, 크림치즈 50g, 케이퍼 약간

1. 크림치즈는 상온에 두어 부드럽게 지어둔다.

2. 잘 익은 백김치는 물기를 꼭 짠다.

3. 김발에 랩을 깔고 ②의 김치를 공백이 없도록 겹쳐 펴준 후 훈제연어를 깐다.

4. 훈제연어 위에 크림치즈를 펴 바르고 케이퍼를 뿌려 김밥 말듯이 돌돌 말아 냉장실에 겉면이 단단해질 정도로 차갑게 굳힌다.

5. 먹기 직전에 한 입 크기로 잘라 접시에 담는다.

◆연어된장찜

분량: 2인분 / 난이도: 보통 / 열량: 178㎉ / 조리시간: 40분

[재료] 연어 400g, 된장 3큰술, 당근·양파 각 1/2개, 브로콜리 약간 **(양념)** 청주 3큰술, 양겨자 1작은술, 참기름 1/2큰술, 계란 노른자 1개, 물 1과1/2컵

1. 연어는 큼직하게 썰어 소금물에 깨끗이 씻는다.

2. 브로콜리는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적당한 크기로 자른다.

3. 당근과 양파는 큼직하게 깍둑썰기를 한다.

4. 당근과 양파를 냄비에 깔고 연어를 얹은 후 연어에 소스를 끼얹어 가면서 찐다.

5. 접시에 채소와 연어를 보기 좋게 담는다.

축구용품 거래 크게 늘어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이 곧 열린다. 2014 브라질월드컵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축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 몸소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오픈마켓 11번가의 조사에 따르면 5월 축구용품 거래액이 지난달보다 15%, 전년 동기보다 37%로 증가했다.

언제 어디서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모바일 축구 게임은 네이버 앱스토어 최초 100만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업계는 축구 경기 시 직접 사용하는 제품뿐만 아니라 축구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콘텐츠들도 선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인 축구 활동 등을 통해 직접 축구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축구 경기를 돕는 제품들도 속속 출시되고 있다.

미국 스포츠케어 브랜드 미션 애슬릿케어의 '클릿 그립'(사진)은 축구화의 잔흙 끼임 및 미끄럼 방지를 도와 부상 위험을 줄이고 정확하고 빠른 움직임에 효과적이다.

뚜껑 상단의 솔로 축구화 바닥 부분의 이물질을 제거한 뒤 용기에 장착된 스펀지를 사용해 내용물을 도포한 후 말려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다.

직접 축구를 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온라인으로 쉽고 간단하게 즐길 수 있다.

넥슨은 온라인 축구게임 '피파온라인 3'와 모바일 버전 '피파온라인 3M'에서 월드컵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월드컵 모드'를 오픈했다.

개막전이 열릴 브라질 상파울루 '코린치앙스' 경기장을 포함한 12개의 경기장과 203개국 7000여 명의 국가대표 선수 등 방대한 공식 축구 라이선스 데이터를 반영했다. 특히 월드컵 모드에서는 '가상 패드'가 도입돼 더 섬세한 조작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서현혁 인턴기자 hyun@

키스데이 위한 덴탈 뷰티 아이템

14일 키스데이는 연인들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키스를 나누는 기념일이다. 사랑하는 상대와 나누는 키스는 엔돌핀을 증가시켜 통증을 감소시키며 스트레스를 자극하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라는 호르몬의 생성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다. 로맨틱한 키스데이를 보내고 싶다면 뷰티 카테고리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치아 관리까지 철저하게 해야 한다.

덴탈 뷰티의 기본은 치석 관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치석이란 치면 세균막이 치아와 잇몸 사이의 공간에서 칼슘 이온 등의 무기질과 함께 석회화된 것으로 구취의 치아 변색, 잇몸 질환 등의 원인이 된다.

치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고 평소 치석 기능성 치약으로 관리해주는 것이 좋다. /정혜인 기자

"조금씩 변화주며 발전하고 있죠"

'우는 남자' 에서 모성애 연기 펼친

김민희

배우 김민희(32)는 작품을 내놓을 때마다 관객을 놀라게 하는 재주가 있다. 매 번 기대 이상의 연기를 펼쳐 깊은 인상을 남긴다. 어느 새 '믿고 보는 여배우'가 된 그는 최근 개봉한 '우는 남자'에서 또 한번 관객의 예상을 깼다.

■ **눈물 열연** – 김민희는 '우는 남자'에서 남편과 딸을 잃은 모경 역할을 맡아 극한 절망의 감정을 연기했다.

영화는 킬러 곤(장동건)이 조직의 마지막 명령으로 목표물 모경을 만나고 임무와 죄책감 사이에서 갈등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아직 미혼인 김민희는 잃은 감정 연기로 아이를 잃은 엄마의 심정을 절절하게 표현했고 데뷔 이래 가장 많이 울었을 정도로 눈물 열연을 펼쳤다.

"촬영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촬영장에서 항상 눈이 퉁퉁 부어있었죠. 당시 계절이 겨울이어서 부은 눈을 가라앉히기 위해 일부러 밖으로 나가 추운 공기를 쐬고 들어오곤 했어요. 그러나 저보다 장동건 씨가 더 힘들었을 겁니다."

■ **이정범 감독** – 엄마 역이 어울릴지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우려에도 이정범 감독이 자신을 믿고 선택했다며 고마워했다.

"제가 엄마 역을 맡는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품었던 의심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감독님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해줬고 모든 촬영이 끝났을 때 저와 함께 한 것을 기뻐해줬어요."

그는 이 감독에 대해 "마초처럼 보이지만 감성적이다. 내가 오열하는 연기를 지켜보면서 따라 울었다. 직접 표현하지 않지만 마음으로 배우를 매우 아낀다는 느낌을 갖게 해줬다"면서 "다음에 자기작 출연을 제안한다면 함께 하고 싶다. '우는 아저씨'라도 오케이"라고 두터운 신뢰를 드러냈다.

■ **연기력 발전** = 김민희는 연기력이 나날이 늘고 있다는 주위의 칭찬이 기쁘다.

시작은 2006년 방영된 드라마 '굿바이 솔로'였다. 이 작품에서 노희경 작가에게 "흠 잡을 곳이 없다"는 극찬을 받은 그는 '뜨거운 것이 좋아' '화차' 그리고 지난해 개봉된 '연애의 온도'에서까지 뛰어난 연기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백상예술대상 최우수 연기상을 두 번이나 받았다.

'우는 남자'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장동건은 "앞에서 잰 여배우"라고 칭찬했다. 사실 연기를 놓고 따져 보면 앞에서 잰 지는 오래 됐지만 김민희는 "장동건 선배님의 칭찬에 감사하다. 조금씩 변화를 주며 발전하고 있다"며 미소를 지었다.

■ **배역 선택** = '화차'의 미스터리한 여인이나 이번 영화의 모경 등 주로 쉬지 않은 배역을 선택해왔다.

"깊은 감정 연기에 매력을 느끼는 편이에요. '연애의 온도'도 일상을 다뤘지만 감정은 결코 얕지 않았죠. 깊은 감정을 표현해내는 건 힘들지만 현장에 가서 연기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금세 잊어버려요."

'우는 남자'에 끌린 이유도 분명했다. 극중 누구와도 교감하지 않는 연기가 어려울 것 같았지만 그래서 더욱 끌렸다는 것이다. 영화에서 곤과 모경이 만나는 건 단 한 장면뿐이다. 김민희는 "단 한 장면이었지만 좋았다. 그 한 장면이 곤과 모경이 함께 있는 모습을 더욱 궁금하게 했다"고 말했다.

눈물 연기에 두 눈 퉁퉁 부어
믿어준 이정범 감독에 감사
깊은 감정 몰입에 매력 느껴

■ **연기 비결** = 김민희가 또래 미녀 여배우들에 비해 연기에서 빨리 두각을 나타낸 비결은 감정 몰입 덕이다.

"전 삶의 경험은 많지 않아요. 대체로 순탄하게 살아왔죠. 그러나 색 등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누군가의 감정을 느낄 수는 있어요. 전 감정에 잘 몰입하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연기를 할 때는 제 삶과 분리해 배역의 감정만 신경 쓰죠."

힘들게 촬영한 한 편의 영화를 마치면 어떤 감정이 들까. "배역의 감정에 쉽게 빠져 드는 한편 또 쉽게 빠져 나오는 편이에요. 나중에 떠올릴 때 가장 생각나는 건 계절감이죠. '화차'를 찍을 때는 더웠고, '우는 남자'를 찍을 때는 너무 추웠답니다."

/박한준기자 hjpark627@metroseoul.co.kr

사진/일리아트 제공 디자인/최송이

www.animal2014.co.kr
언제까지?
2014. 5.1 ~ 7.6
보고 놀고 체험하는
동물 몸속 탐구여행!
플라스티네이션
Plastination
동물이 사체에서 부패방지를 위해
수분과 지방을 깨끗이
제거하고 실리콘과 같은
폴리에스테르 합성수지 등을
대체해 마치 살아있는 듯한
상태로 영구 보존하는
과학 기술을 말해요
300만명 관람
인체의 신비전
그 이상의 감동!!
정말 내 몸속이 궁금해??!!
리얼 100% 재미 200%
동물의 몸속 신비展
서울특별전
세상 어디에도 없는 전시가 온다!
관람시간 오전 10:00 ~ 오후 06:00
관람안내 모든 관람객 13,000원
단체 할인가 11,000원
특별 할인가 5,000원
티켓판매 옥션 AUCTION, 지마켓 Gmarket
오시는 길 서울 능동 어린이회관 특별 전시장
주차안내 전시 주차 도장 받으면
5,000원(승용차)/ 10,000원(버스)
본 광고를 찢어오시면 3500원이 할인됩니다.

온스타일 제시카&크리스탈 /CJ E&M

리얼? 연출? '아슬아슬 줄타기'

'제시카&크리스탈' 등 너도나도 날것 표방

진짜 리얼'을 표방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수없이 쏟아지고 있다. 그 가운데 날 것 그대로의 리얼과 제작진의 의도가 개입된 연출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지난 6월 가수 윤종신은 자신의 트위터에 "미스틱89(윤종신 회사)가 아이돌그룹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구체적인 소식 곧 알리겠다"고 밝혀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하지만 이는 다음달 첫 방송 예정인 엠넷 '엔터테이너스'에서 펼쳐질 이야기를 예고한 것이었다.

박준수 PD의 '엔터테이너스'는 가상의 이야기에 실제 인물들이 등장하는 새로운 장르의 프로그램.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최고 실력자를 꿈꾸는 윤종신이 권모술수로 좌충우돌의 제작자로 거듭나려는 내용이다. 특히 음원 사재기 의혹, 부당 계약, 방송국과의 거래설 등 민감한 이슈를 박 PD 특유의 감각으로 꼬집어낼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리얼리티를 표방했으나 작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프로그램도 있다. 여이돌 자매의 일상생활을 그린 온스타일 '제시카&크리스탈'에서 두 사람은 30여 대의 카메라가 설치된 '제크 하우스'에서 지내며 요리를 하고 수다를 떨며 지낸다. 제작진은 "리얼리티라고 해서 꼭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다"며 "조미료를 넣지 않은 깔끔한 리얼리티를 감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본 '제시카&크리스탈'은 반쪽짜리 리얼이었다. 스타 일상 리얼리티의 효시인 엠넷 '오프 더 레코드, 효리'(2008)에서 이효리는 실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평소 모습을 보여줬다. 당시 연출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으나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공간이 실제 이효리 집이란 사실은 분명했다. 그러나 제시카와 크리스탈은 촬영 기간에만 '제크 하우스'에 머물다 각자의 숙소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프로그램의 그릇 자체가 연출된 상황에서 두 사람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무대 위의 아이돌 자매가 아닌 티격태격하는 일상을 담는 것이 콘셉트인 '제시카&크리스탈'은 이미 '제크하우스'가 무대가 돼버렸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김지민 기자 kimjkum8

예능의 힘 '캐릭터'가 좌우

'1박2일' '런닝맨' 출연진 별명 인기 "많은 이야기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

입에 착착 감기는 별명과 독특한 캐릭터가 예능 프로그램 인기를 주도하고 있다. 캐릭터는 예능에서 그려지는 많은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이다.

KBS2 '해피선데이-1박2일 시즌3'(이하 '1박2일')는 출연진의 별명을 확정하며 2막이 시작됐음을 알렸다. 앞서 '쓰레기'라는 캐릭터 설정으로 시즌1 이후 침체됐던 분위기를 반전시켰기에 이번 시도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지난 8일 중간평가 '당신의 이미지는 안녕하십니까?'에서 김주혁, 김준호, 차태현, 데프콘, 김종민, 정준영 등 6명의 출연자들은 반년 동안의 활약을 정리했고 서로에게 별명을 붙였다.

KBS2 '해피선데이-1박2일'

김주혁은 사자성어 '토사구팽'을 '토사구행'으로 잘못 답한 일화로 '구넹이형'이란 별명을 얻었다. 개그맨 김준호는 '양심 있는 쓰레기'의 준말인 '양쓰'로 별명을 확정했다. 차태현은 웃음이 헤픈 취한 가수 MC해미의 이름을 차용한 'MC헤퍼', 데프콘은 방송 분량에 적정이 많아 '근성 돼지'로 캐릭터를 굳혔다. 김종민은 '신난 바보', 시즌3에서 항상 운이 좋았던 막내 정준영은 '행운의 4차원 병사'라고 불렸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예능 방송에서 보여주는 많은 상황을 시청자가 기억하는 건 어렵다"며 "캐릭터로 이 모든 걸 집중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SBS '일요일이 좋다-런닝맨'(이하 '런닝맨')의 인기도 독특한 캐릭터에서 나온다.

'개대세' 개리, '멍지효' 송지효, '능력자' 김종국과 '배신의 아이콘' 이광수, '왕코' 유재석, 지석진 등은 인물의 성격과 역할을 축약한 별명으로 시청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간다. 커플도 있다. 개리와 송지효는 월요커플로 예능 로맨스를, 김종국과 이광수는 사자와 기린으로 예능 약육강식을 보여준다.

SBS '일요일이 좋다-런닝맨'

정 평론가는 "리얼 예능에서 캐릭터 설정은 절대적이다"며 "굳이 제작진이 설명하지 않아도 시청자가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게 하는 힘"이라고 말했다.

이어 "캐릭터는 하나의 역사를 만든다"며 "'런닝맨' 초반 이광수는 어눌한 캐릭터였다. 그러나 게임에서 맹활약하며 지금은 아시아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독특한 인물이 지내온 이야기를 시청자가 즐기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효진기자

김준 '끝없는 사랑' 출연

제대 후 첫 안방 나들이

배우 김준(사진)이 SBS 새 주말극 '끝없는 사랑'에 합류한다. 지난해 전역한 후 첫 드라마 출연이다.

12일 김준의 소속사 참 컴퍼니 측은 "김준이 지난해 6월 28일 제대 후 첫 드라마를 '끝없는 사랑'으로 확정했다"며 "현재 촬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작품에서 부와 지성, 예술적 기질을 겸비한 김태진 역을 연기한다. 신인 여배우 서인애(황정음)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고뇌하는 순애보적인 총리 아들이다. 예능생인 김세경(전소민)을 아끼는 동생 바보이기도 하다.

김준은 데뷔작 KBS2 '꽃보다 남자'(2009)에서 F4 송우빈으로 국내외에서 큰 사랑을 받았다. 제대 후 일본 블록버스터 '무쿠 3세'에 출연했고 오는 8월 스크린 데뷔를 앞두고 있다.

'끝없는 사랑'은 70년대부터 80·90년대를 거쳐 현재까지를 배경으로 한다. 현대사를 치열하게 살아 온 주인공들의 꿈과 야망, 사랑을 다룬다. '엔젤아이즈'의 후속 작으로 오는 21일 첫 방송된다. 배우 황정음, 정경호, 류수영 등이 출연하며 '야망의 세월'(1990), '에덴의 동쪽'(2008) 등을 쓴 작가 나연숙이 집필했다. /전효진기자

이종석 중화권 3연타 흥행

출연작 다운로드 6억건

배우 이종석(사진)이 신 한류 4대 천왕으로 부상하고 있다.

드라마 '학교2013', '너의 목소리가 들려'(이하 너목들)와 '닥터이방인'이 중화권에서 3연타 흥행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동영상 다운로드 수가 총 6억 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석이 현재 출연 중인 SBS 월화드라마 '닥터이방인'은 중국 유명 동영상 사이트 유쿠와 토도우에서 약 1억5000만 건 다운로드 됐다. 전작 '너목들'(2013)은 현재까지 유쿠 누적 다운로드 수

3억5000만 건을 기록했다. '닥터이방인' 종영까지 그가 출연한 작품들은 약 6억 건이 다운로드 될 것으로 보인다.

체감 인기도 상당하다. 지난 9일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 계정을 개설했다. 약 3개월 만에 중화권 팔로워 100만 명을 돌파했다.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의 '이종석 바'는 월간 방문자수 약 600만 명, 누적 글 약 280만 건을 기록했다.

이종석은 중국 현지 드라마, 광고, 영화, 예능 등에서 섭외 1순위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 관계자는 이종석의 중화권 인기가 웰메이드 작품과 훈훈한 외모, 연기력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다. /전효진기자

한·일 걸그룹 한국 무대서 '맞짱'

노기자카46 등 일본 인기 아이돌 상륙

국내 가요계에서 한국과 일본 아이돌 그룹이 치열한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요즘 가요계는 그야말로 '아이돌 홍수'다. 매년 수십 개의 팀이 생겼다 사라지고 있다. 갈수록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 때문에 신인 아이돌 그룹의 경우 화려한 퍼포먼스와 자극적인 요소를 앞세워 대중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젠 아이돌을 빼놓고 우리 가요계를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다.

최근 일본 유명 아이돌 그룹 노기자카46(사진)가 한국 가요계에 출사표를 던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 최고 여성 아이돌 그룹으로 군림하고 있는 노기자카 46는 12월 싱글 '제단고 보니 짝사랑'을 발표했다. 한·일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12년에 데뷔한 노기자카46는 지금까지 일본에서 8장의 싱글을 발매했다. 오리콘 주간 차트 정상에 오르며 AKB48의 뒤를 잇는 최고의 여성 아이돌 그룹으로 급부상했다. 이들의 인기는 일본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소니뮤직 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노기자카46의 한국 팬들은 3000여 명정도 있다"며 "일본 현지 인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시아 전역에서 한국 아이돌 그룹의 인기는 현지 아이돌보다 높은건 사실"이라며 "이 때문에 일본에서 한국 가요계 진출을 준비하고 있지만 쉽게 도전하지 못했다. 노기자카46를 시작으로 AKB48 등 다양한 아이돌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기자카46의 성공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 국내 가요계에는 단발머리, 마마무, 베리굿 등 다양한 신인 걸그룹이 각가 다른 매력으로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과연 일본 최고 여성 아이돌 그룹이 치열한 생존 경쟁을 펼치고 있는 한국 가요계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장병호기자 sxw@metroseoul.co.kr

월드컵 '극장 스크린으로…'

2014 브라질 월드컵에 출전한 태극전사의 활약상을 영화관의 대형 스크린으로 감상할 기회가 마련됐다.

멀티플렉스 영화관인 메가박스, CJ CGV, 롯데시네마는 18일 오전 7시(한국시간)에 열릴 러시아 전을 비롯해 23일 알제리전, 27일 벨기에 전 등 대한민국 선수들이 출전하는 조별 리그 세 경기를 전국 극장에서 생중계 한다.

메가박스는 강남·코엑스·목동·센트럴·광주·대구·대전 등 전국 22개 지점, CJ CGV는 압구정·수원·대구·대전·광주터미널 등 전국 32개 지점, 롯데시네마는 에비뉴엘 용산·노원·서현주·대전둔산·대구·부산본점 등 전국 10개 지점에서 생중계 한다. 티켓 가격은 두 곳 모두 1만 원이다.

이들 극장들은 지난 2006년 독일 월드컵, 2010년 남아공 월드컵도 생중계 했다. 당시 많은 관객이 극장을 찾아 월드컵을 즐겼다.

/박도형기자

록의 향연이 시작된다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8월 1일 개최

국내 대표적인 여름 축제인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이 올해도 어김없이 록음악 팬들을 찾는다.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2014 (이하 펜타포트)가 8월 1~3일 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린다. 지난해 화려한 라인업과 안정된 페스티벌 운영 노하우로 8만 5000여 관객에게 큰 호평을 받았던 펜타포트는 올해 역시 원조 록 페스티벌의 위용을 과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최정상 뮤지션 100여 팀이 참여한다. 해외 팀으로는 영국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의 헤드라이너로 유명한 카사비안을 비롯해 트래비스, 스타세일러, 보이즈 라이크 걸즈 등이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국내 팀으로는 발라드에서 록까지 폭 넓은 장르를 소화하는 이승환이 지난해 들국화에 이어 국내 뮤지션 대표로 참여한다. 또 어반자카파, 피아, 데이브레이크, 구남과여라이딩스텔라 등이 무대를 꾸민다.

3일권 티켓 가격은 18만7000원이다. 조기 예매 등 다양한 할인 정책을 이용하면 15~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다. 인천 시민과 대학생, 군인도 20% 할인된다.

지난해 열린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행사 당시 모습

주최 측은 "1999년 트라이포트 록 페스티벌 이라는 명칭으로 시작된 펜타포트는 화려한 라인업과 편리한 환경, 합리적인 가격 등으로 국내를 넘어 아시아의 대표 록 페스티벌로 자리매김 했다"면서 "2014 년의 펜타포트는 한층 더 발전된 모습으로 돌아온다"고 설명했다.

/박진현기자 jin0427@

왼쪽부터 배우 이광수, 지성, 주지훈이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 압구정에서 열린 영화 '좋은 친구들' 제작보고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성·주지훈·이광수 '의리로'

'좋은 친구들' 제작보고회서 칭찬 릴레이

영화 '좋은 친구들'에 함께 출연한 지성, 주지훈, 이광수가 끈끈한 우정을 과시했다.

극중 절친한 친구를 연기한 세 사람은 12일 CGV압구정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서로를 칭찬하며 현장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었다.

지성은 영화에서 여배우가 아닌 남자배우들과 호흡을 맞춘 것에 대해 "나에겐 여배우 이상으로 예쁜 두 동생이 있다"면서 "처음에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예의 바르고 착한 친구들이었다. 이들 덕분에 행복했다"고 말했다.

이광수는 주지훈에 대해 "큰 감동을 받았다. 화재 장면을 찍을 때 유독가스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지훈 형이 컷 소리가 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프로의식을 칭찬했다.

두 사람의 칭찬에 주지훈은 "지성 형이 뛰는 신에서 관절과 골반이 삐끗한 것 같았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고 열심히 뛰더라. 광수는 유리 파편을 밟고서 연기했다. 눈물 날만큼 감동했다"고 화답했다.

'좋은 친구들'은 우발적인 사건으로 의리와 의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세 남자를 그린 범죄 드라마로 다음 달 10일 개봉한다.

/박건희기자

‘티키타카 vs 토털사커’ 시작부터 빅뱅

스페인-네덜란드 ‘리턴매치’·A·B조 첫경기 관심집중

FIFA WORLD CUP Brasil

월드컵 개막 이틀째를 맞는 축구 팬들은 불 타는 금요일을 TV 앞에서 보내도 아쉬움이 없을 듯하다. 2014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최대 이슈인 스페인과 네덜란드 경기는 놓쳐서는 안 될 빅카드다.

◆멕시코-카메룬(A조 14일 오전 1시 두다스 경기장)

브라질과 함께 A조에 속한 두 팀은 사실상 남은 1장의 16강행 티켓을 두고 다퉈야 하는 상황이다. 멕시코(1970~1986년)와 카메룬(1990년) 모두 8강 진출이 역대 월드컵 최고 성적이다.

전통의 강호인 멕시코는 북중미 최강의 자리를 미국에 위협받고 있지만 언제든지 이변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을 지녔다. 2012 런던 올림픽에서는 최정예 멤버로 나선 브라질을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기도 했다.

'치차리토' 하비에르 에르난데스(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지오바니 도스산토스(비야레알), 안드레스 과르다도(레버쿠젠) 등 유럽파와 베테랑 카를로스 살시도(UANL 티그레스)를 앞세웠다.

카메룬은 사뮈엘 에토오(첼시)를 앞세워 첫승 사냥에 나선다. 에토오는 A매치 114경기에 나와 55골을 터뜨릴 만큼 강한 화력의 소유자다. 에토오 외에도 니콜라스 은쿨루(마르세유), 베누아 에코토(퀸스파크 레인저스), 알렉스 송(바르셀로나), 스테판 음비아(세비야) 등 주전 선수 전원이 유럽 빅리그에서 뛰고 있어 서심상의 유럽팀의 전력을 갖추고 있다.

두 팀은 1993년 평가전에서 한 차례 맞붙어 멕시코가 1-0으로 승리했다.

◆스페인-네덜란드(B조 14일 오전 4시 폰치노바 경기장)

지난 대회 결승에서 맞붙은 두 팀이 이번 대회 개막 이틀날 '리턴매치'를 벌인다.

4년 전 대결에서는 13장의 옐로카드가 쏟아지는 연장 혈전 끝에 안드레스 이니에스타의 결승골(바르셀로나)에 힘입은 스페인이 월드컵 첫 우승을 따냈다. 짧고 정교한 패스로 공 점유율을 높이는 '티키타카'와 과거 공수의 개념을 파괴한 '토털사커'의 대결로도 흥미를 더한다.

유로 2008, 2010 남아공 월드컵, 유로 2012에서 연달아 정상에 오른 '무적함대' 스페인은 여전히 막강 화력을 뽐내며 브라질에 맞설 이번 대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다. 유럽 챔피언 레알 마드리드, 스페인 리그를 제패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스페인 대표 클럽 바르셀로나의 주축 선수들로 꾸려진 스페인은 선수별 스타성이나 조직력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

특히 B조 2위는 A조 1위가 예상되는 브라질과 16강에서 만나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조 1위 경쟁을 위한 두 팀의 대결은 지난 대회 결승전 못지 않게 치열할 전망이다.

네덜란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공격의 핵인 로빈 판 페르시와 바이에른 뮌헨의 아르옌 로번을 앞세워 스페인 골문을 공략한다. 다만 미드필드와 수비진용은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다.

◆칠레-호주(B조 14일 오전 7시 판타나우 경기장)

스페인-네덜란드와 상대해야 하는 두 팀은 이 경기에서 확실한 승점을 챙겨야만 16강 진출의 희망을 걸 수 있다.

칠레는 알렉시스 산체스(바르셀로나)가 이끄는 공격진이 탄탄하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4위로 호주(62위)보다 높은 칠레는 상대 전적에서도 3승1무로 우세하다. 호주는 평균 연령 23세의 젊은 팀으로 이변을 노린다.

네덜란드의 로빈 판 페르시. /로이터 연합뉴스

/유순호기자 suns@metroseoul.co.kr

베팅업체 한국 1승2패 3위 전망

월드컵 이모저모

해외 유명 베팅업체가 대한민국 대표팀의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성적을 분석한 자료가 나왔다. 영국 베팅업체는 우리나라가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1승 2패의 성적을 거둘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다. 영국의 베팅포털 오즈 체커는 우리나라가 알제리에게는 이길 확률이 높고, 러시아와 벨기에를 상대로는 질 확률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 업체의 예측을 종합하면 H조 조별리그에서 벨기에는 3승, 러시아는 2승 1패, 우리나라는 1승 2패, 알제리는 3패를 기록한다.

◆월드컵 입장권 구매 순위

2014 브라질 월드컵 입장권을 가장 많이 구입한 국가는 개최국 브라질에 이어 미국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월드컵 입장권 판매량은 300만장을 육박했다.

12일 브라질 일간지 폴랴 데 상파울루는 "전체 330만 여장의 입장권 가운데 지난 5일 현재까지 296만1911장이 판매됐다"고 보도했다. 국가별 판매 현황을 살펴보면 브라질이 136만3179장, 미국이 19만6838장, 아르헨티나 6만1021장, 독일 5만8778장, 잉글랜드 5만7917장, 콜롬비아 5만4477장, 호주 5만2289장, 칠레 3만8638장, 프랑스 3만4864장, 멕시코 3만3654장 등이었다.

◆파비오 카펠로 감독 최고 몸값

한국의 월드컵 첫 상대인 러시아 파비오 카펠로 감독이 출전국 가운데 가장 많은 연봉을 받고 있다. 홍명보 감독의 15%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영국 데일리메일이 보도한 32개국 감독의 연봉을 보면 카펠로 감독은 669만3750파운드(약 114억4000만원)를 받는다. 홍명보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은 47만3750파운드(약 8억1000만원)를 받아 23위를 차지했다.

2위에 오른 로이 호지슨 잉글랜드 대표팀 감독은 350만 파운드(약 59억8000만원)에 달한다. 3위는 체사레 프란델리 이탈리아 감독이다. 프란델리 감독은 257만5천 파운드(약 44억원)의 연봉을 기록했다.

개최국 브라질의 루이스 펠리페 스콜라리 감독은 236만7500파운드(약 40억5000만원)로 4위에 올랐고 오트마르 히츠펠트 스위스 감독(223만1250파운드·약 38억1000만원), 요아힘 뢰브 독일 감독(214만6250파운드·약 36억7천만원)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류현진 시즌 8승 사냥 실패

6이닝 4실점…다저스 4연승 중단

몬스터 류현진(27·LA 다저스·사진)이 시즌 8승 사냥에 실패했다. 올 시즌 원정경기 불패행진도 멈췄다.

류현진은 12일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린 신시내티 레즈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방문경기에 시즌 12번째 선발 등판했다. 6이닝 동안 홈런 하나를 포함한 6안타와 볼넷 두 개를 내주고 4실점했다. 삼진은 5개를 잡았다. 류현진은 신시내티 우완 선발 조니 쿠에토의 호투에 밀려 다저스가 0-4로 끌려가던 7회 수비 때 폴 마홈과 교체됐다.

최근 3연승을 달린 다저스는 5안타를 치는 데 그치면서 결국 0-5로 졌다. 이로써 류현진은 패전투수가 돼 시즌 3패(7승)째를 떠안았다.

올 시즌 5승을 챙긴 원정경기에서는 7번째 등판 만에 첫 패배를 당했다. 어깨 부상에서 회복한 뒤 이어진 4연승 및 4경기 연속 퀄리티스타트(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내 투구) 행진도 중단됐다.

류현진의 시즌 평균자책점은 3.08에서 3.33으로 올랐다. 원정경기 평균자책점도 1.95에서 1.64로 뛰었다.

이날 류현진은 공 104개를 던졌고 이 중 스트라이크는 67개였다. 최고 구속은 시속 93마일(약 150㎞)이 찍혔다.

한편 현재 다저스의 선발 로테이션대로라면 류현진은 오는 17일 콜로라도 로키스와 홈 3연전 첫 경기에서 다시 시즌 8승째에 도전하게 된다.

/김성현기자 yeon@

프로야구 전적 12일

■잠실

NC	110	000	001	3
두산	210	000	001	4

[illegible]

■목동

삼성	000	002	200	4
넥센	111	301	00X	7

[illegible]

■광주

롯데	140	102	002	10
KIA	101	251	10X	11

[illegible]